



GREAT CHALLENGE

GREAT INNOVATION

GREAT SHARING

GREAT INNOVATOR

미래는 만드는 것이다.

깊은 통찰과 예지력으로 혁신적인 목표를 정하여

원칙을 지켜 매진한다면,

어느덧 세상은 우리를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다.

미래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고 개척하는 것이다.

3월 5일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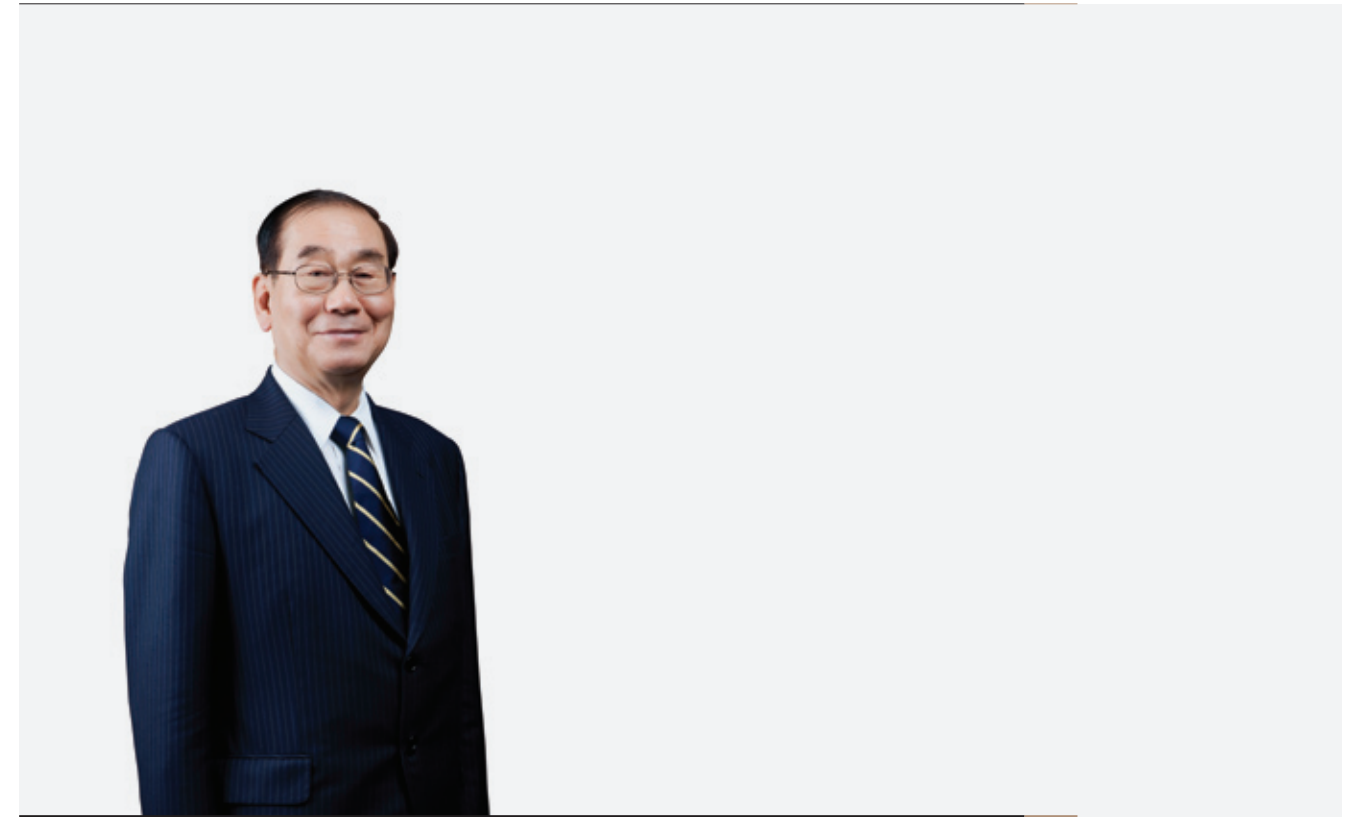
## 도전적이며 혁신적인 미래를 위하여

안녕하십니까.

포니정 재단은 국내 자동차 산업의 개척자이자 선구자이신 정세영 회장의 업적과 공로를 기리기 위하여 유족인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과 현대산업개발 그룹 계열사, 현대 관계사, 고인과 경영의 인연을 같이 했던 기업, 그리고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하는 이들의 출연으로 2005년 11월에 설립 되었습니다.

정세영 회장은 기술과 자본이 없던 1970년대 모두가 무모한 일이라고 반대했던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어 국내 최초로 자동차 고유 모델 ‘포니’를 개발하고 해외 수출 시장 개척에 앞장섰습니다. 그 결과, 1945년 이후 독립한 140개 국가 중 원천기술과 세계시장을 확보한 유일한 자동차 제조 회사로 도약시킴으로써, 한국 기업을 당당한 세계 무대의 주역으로 키워냈습니다.

지난 32년간 한국 자동차 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혁신적 사고, 정도 경영, 인재 중시, 도전 정신을 삶의 목표이자 경영이념으로 삼았던 고인은 우리 시대의 창조적 리더이자 기술 근대화의 이노베이터 였습니다.



또한 매사에 원칙과 소신으로 일관했던 그는 어느 자리에 있건 바른 길을 걷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정도 경영을 삶의 목표와 기업 경영의 요체로 여겼습니다. 절제와 겸손과 인내에 철저한 그의 인품은 모두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포니정 재단은 정세영 회장의 이러한 정신을 계승하고 우리의 풍요로운 미래를 열어 가기 위해 다방면에 걸쳐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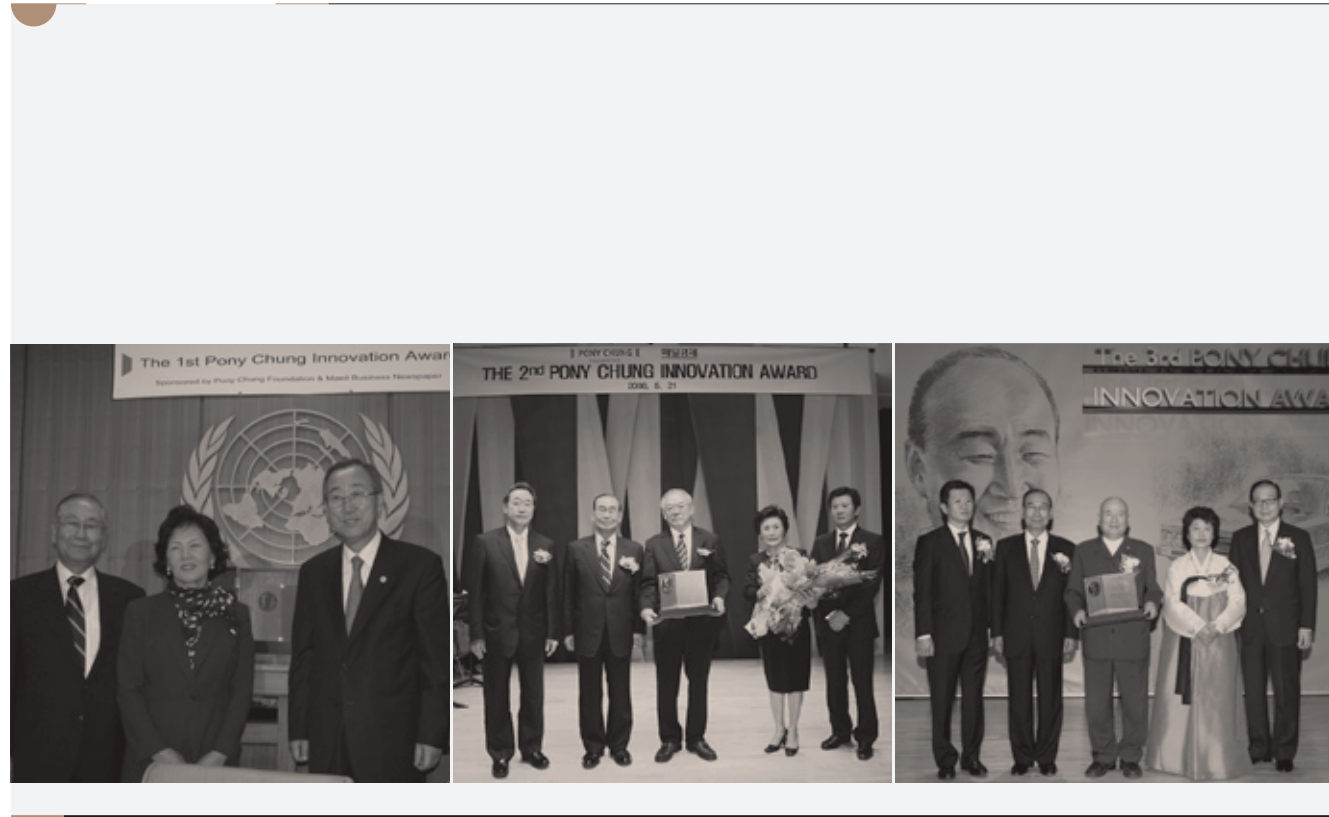
앞으로도 국가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분야지만 관심과 지원이 부족했던 인문학의 진흥을 돕고, 남다른 앞선 생각과 노력으로 새로운 지평을 개척한 인물의 업적과 정신을 알리며, 내일의 주역이 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포니정 재단의 이러한 발걸음에 더 큰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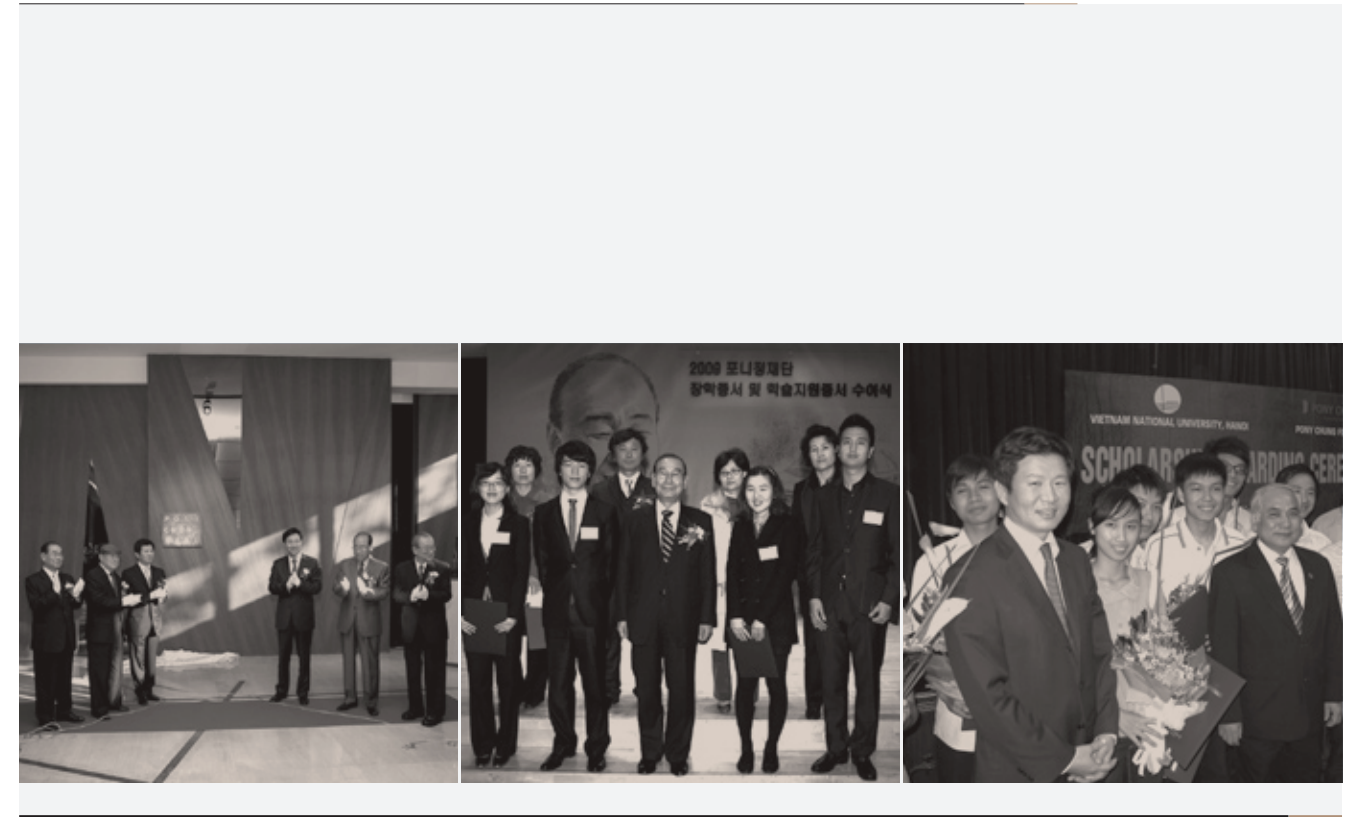
포니정 재단 이사장 김 진 현

## GREAT CHALLENGE

연혁



- 2005. 10. 최초 출연금 8억 원
- 2005. 10. 주무관청 설립 허가
- 2005. 11. 관할법원(서울지방법원 삼성등기소) 등기 완료
- 2006. 04. 포니정 혁신상 협약식 개최 (매일경제신문사)
- 2006. 05. 故 정세영 회장 추모집 발간
- 2006. 05. 故 정세영 회장 흉상 제막식
- 2006. 12. 제1기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52명)
- 2007. 08. 포니정 장학생 워크숍 개최
- 2007. 09. 제1회 포니정 혁신상 시상 (수상자 반기문 UN 사무총장)
- 2007. 10. 베트남 장학사업 MOU 체결 및 장학금 수여 (20명)
- 2007. 12. 제2기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33명)



- 2008. 01. 포니정 장학생 동계 워크숍 개최
- 2008. 05. 포니정홀 개관
- 2008. 05. 제2회 포니정 혁신상 시상 (수상자 KAIST 서남표 총장)
- 2008. 07. 포니정 장학생 워크숍 개최
- 2008. 08. 포니정 장학생 해외 연수 실시 (프랑스, 일본)
- 2008. 10. 베트남대학 장학금 수여 (60명)
- 2008. 12. 2008년 장학증서 및 학술지원증서 수여식 개최 (장학생 24명, 학술지원 교수 2명)
- 2009. 05. 제3회 포니정 혁신상 시상 (수상자 가나안농군운동세계본부)
- 2009. 07. 포니정 장학생 워크숍 개최
- 2009. 11. 베트남대학 장학금 수여 (60명)
- 2009. 12. 2009년 장학증서 및 학술지원증서 수여식 개최 (장학생 24명, 학술지원 교수 2명)
- 2010. 05. 제4회 포니정 혁신상 시상 (수상자 차인표, 신애라 부부)

## GREAT CHALLENGE

재단 임원진



이사장



김진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위원회 위원장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前 과학기술처 장관  
前 문화일보 회장  
前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前 동아일보 논설 주간

이사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前 현대자동차 회장

이사



유희춘

한일이화 회장  
前 중소기업협동회 상임이사



이사



이양섭

엠에스오토텍, 명신 회장  
前 현대자동차 사장

이사



김철수

무역투자연구원 이사장  
前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차장  
前 상공자원부 장관  
前 세종대학교 총장

감사



조성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前 발택컨설팅 사장

감사



류용호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서울행정법원 판사

# Good to Great



Chung A. Yung

eternal pioneer of dreams and hopes,  
PONY CHUNG

HIS WAY  
(1928-2005)

미래는 만드는 것이다.  
깊은 통찰과 에너지로 혁신적인 목표를 정하여 원칙을 지켜 행진한다면,  
어느덧 세상은 우리를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다.  
미래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고 개척하는 것이다.  
The future is in your own hands.  
The world can be had if only you could set a clear goal and pursue it with passion and principles.  
The future is not something to be awaited for; rather, it is to be challenged and cultivated.

1928 강원도 통천 출생  
Born in Tongchon, Gangwon Province

1953 고려대학교 정치외교 학사  
Graduated from Korea University with a B.A. in Political Science & International Relations

1957 미국 마이애미대학 정치학 석사  
Graduated from University of Miami, USA with a M.A. in Politics

1961 한국자동차 설립 및 대표이사 사장 취임  
Established and inaugurated as President of Hyundai Motor Company (HMC)

1974 국내 최초 고급 승용차인 포니로 토요노 국제모터쇼 참가  
Participated in Tokyo Motor Show featuring Pony, the first Korean automobile model set up in an international automobile community

1976 포니 본격 생산 및 여객자동차 생산  
Began mass production of the Pony and passenger car

1983 영국 런던 대학교 명예 박사학위 수여  
Received an honorary Doctorate of Laws from the University of London

1983 미국 마이애미대학 명예 박사학위 수여  
First foreign student recipient of the Gold Honor Doctor of National University of Miami

1986 뉴욕 대학교 명예 박사학위 수여  
Honorary Doctorate of Laws from New York University

1987 한국자동차 명예 회장 취임  
Inaugurated as chairman of Hyundai Motor Company

1991 고려대학교 명예 석사학위 수여  
Graduated from Korea University with a D.Sc. in Political Science & International Relations

## 포니정 재단은 이 땅에 위대한 희망을 전파합니다

### 2005년 포니정 재단 태동하다

포니정 재단은 국내 자동차 산업의 개척자이자, 선구자인 정세영 회장의 업적과 공로를 기리기 위해 2005년 11월 설립되었습니다.

### 긍정적인 변화를 주도하다

포니정 재단은 '미래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고 개척하는 것이다' 라는 정세영 회장의 신념을 계승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 미래를 개척하다

창의적인 사고와 도전정신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끈 혁신적인 인물을 응원합니다  
국가와 인문학의 진흥을 위해 학술지원 사업에 힘 쏟습니다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 장학사업을 시행하여 인재 육성에 앞장섭니다

## GREAT INNOVATION

포니정 혁신상 취지와 선정 절차

## 도전과 개척정신을 응원합니다

미래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고 개척하는 것입니다

혁신적으로 발상을 전환하고,

투명한 원칙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신념으로 이뤄내야 합니다



### 취지

포니정 혁신상은 산업 근대화와 자동차 공업 세계화의 개척자이자 선구자였던 정세영 회장의 혁신적 사고와 도전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외교,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전 분야에 걸쳐 원칙을 지키는 정도정신, 불굴의 도전정신, 혁신적 창조정신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주도함으로써 국가와 사회 발전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개인 혹은 단체를 대상으로 수상자를 선정합니다.

### 선발 절차

포니정 재단에서는 매년 1월에서 2월까지 포니정 재단 임원진, 역대 수상자, 역대 심사위원, 국내외 저명인사 및 기관, 단체장으로부터 포니정 혁신상 수상자 후보 추천을 받습니다. 후보자를 추천 받은 후 각 부문의 저명한 전문 인사 중에서 포니정 재단 이사장이 위촉한 10인 이내의 심사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심사위원장은 재단 이사장이 겸직하며 심사위원회에서

각 후보자의 자격 및 업적을 심사하여 최종 수상자를 선정합니다. 수상자는 매년 4월 중 발표되며 매년 5월에 시상식이 이뤄집니다.

앞으로도 포니정 재단에서는 외교,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탁월한 업적을 이루고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선도해 오신 분을 찾아 포상하여, 우리 사회의 사표(師表)로 삼고자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포니정 혁신상이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는 상으로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시상 내용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1억 원이 수여됩니다.

## 미래를 만든 사람들 - 포니정 혁신상 수상자

### 2007년 제1회 수상자 - 반기문 UN 사무총장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단국 출신으로서는 불가능하게 보였던 UN 사무총장에 선출되어 대한민국 외교사에 큰 이정표를 남김은 물론, 한국인의 저력을 전 세계에 떨쳤습니다.

### 2008년 제2회 수상자 - 서남표 KAIST 총장

미국 MIT대학교 기계공학과 학과장을 지내면서 한국인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렸을 뿐만 아니라 KAIST의 총장으로 선임된 뒤에는 적극적인 개혁을 시도하여 국내 모든 대학에 변화의 바람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 2009년 제3회 수상자 - 가나안농군운동세계본부 (총재 김범일)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 농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던 가나안농학교의 '가나안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 8곳에 '해와가나안농학교'를 세우고 경제적 자립 모델을 전파하며 빈곤한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여해 왔습니다.

### 2010년 제4회 수상자 - 차인표, 신애라 부부

세계 각지의 불우한 어린이, 대학생들과 1대 1 후원 결연을 맺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으며 끊임없는 기부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두 자녀를 공개 입양해 사랑으로 키움으로써 입양에 대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을 없애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 한국인의 저력을 전 세계에 떨치다

2007년 제1회 포니정 혁신상 수상자

반기문 UN 사무총장



제1회 포니정 혁신상 수상자인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의 일원으로 일해 오면서 공직 사회의 선진화와 혁신에 크게 공헌한 점,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인정받아 혁신상을 수상했다.

## 대한민국 외교사에 남긴 큰 족적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외교관으로 첫발을 내디딘 이후 37년 동안 아시아, 미주, 유럽 등 세계 각지에서 외교관 생활을 역임했다. 또한 대통령 외교안보수석 비서관, 외교통상부 장관

등의 요직을 역임하는 동안 남다른 열정과 성실함으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화했으며 우리나라의 외교 선진화에도 크게 공헌했다.

그는 2006년 10월,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를 대표하는 제8대 UN 사무총장에 선출되었으며 2007년 1월 1일부터 UN 사무총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국제적 활약은 대한민국 외교사에 크나큰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다.

## 세계를 무대로 전파한 희망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충청북도 음성 시골 마을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유년 시절부터 품어 왔던 외교관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외국어 학습에 매진하는 등 노력과 희망이라는 이름의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걸어 올라갔다.

이러한 부단한 노력 덕분에 그는 고등학교 시절, 한국 고등학생 중 단 4명만 뽑는 ‘외국학생의 미국 방문 프로그램(VISTA)’에 선발되어 케네디 대통령을 직접 접견하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세계를 무대로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일을 하겠다는 꿈을 확고히 다졌다.

이후 그는 대학에 진학해 외교학을 전공했으며 외무고시에 합격해 본격적인 외교관 생활을 시작했다. 1993~1994년 제1차 북한 핵 위기 때 주 미국 대사관 정무공사로 재직하면서 한국과 미국 사이의 대북정책을 조율하는 실무 총책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으며 1997년 북한 노동당 비서를 지낸 황장엽이 망명할 당시 중국과 필리핀을 오가며 망명을 성사시키기도 했다.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2006년, UN 사무총장직에 출마할 것을 공식 선언한 그는 같은 해 10월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단독 후보로 추대되었으며 UN 총회에서 제8대 UN 사무총장으로 공식 임명되었다.

현재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세계 최고의 외교관이자 중재자로서 국제 사회의 분쟁 사항을 조율함과 동시에 UN 회원국 간의 국가적 합의를 이끌며 세계 평화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이러한 인생 역정은 한국인의 저력을 전 세계에 떨친 쾌거라 할 수 있다. 그의 성공은 더 큰 미래를 꿈꾸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젊은 이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제1회 포니정 혁신상 수상 당시 부상으로 주어진 상금 미화 십만 달러 전액을 UN 해비타트에서 수행하는 케냐 빈민가 재건사업의 하나인 키베라 청소년 건설기술 교육 프로그램에 기부함으로써 이 상의 가치를 더욱 드높였다.

- 1944 충북 음성 출생
- 1963 충주고등학교 졸업
- 1970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 1970 제3회 외무고시 합격, 외무부 입부
- 1976 주 인도 대사관 1등 서기관
- 1980 외무부 국제연합과 과장
- 1985 하버드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 1987 주 미국대사관 참서관 겸 총영사
- 1990 외무부 미주국장
- 1992 주 미국대사관 공사
- 1995 외무부 외교정책실장
- 1996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 1998 주 오스트리아대사관 대사
- 2000 외교통상부 차관
- 2001 제56차 유엔총회 의장비서실 실장
- 2004 제33대 외교통상부 장관
- 2006 제8대 UN 사무총장 선출

## 열정과 혁신정신으로 대학에 새바람을 일으키다

2008년 제2회 포니정 혁신상 수상자

서남표 KAIST 총장



제2회 포니정 혁신상 수상자인 KAIST 서남표 총장은 확고한 신념과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KAIST의 개혁에 앞장섰으며, 이는 국내 모든 대학에 변화와 개혁의 의지를 전파한 계기가 되었다. 포니정 재단은 서남표 총장의 이러한 남다른 혁신 정신을 높이 사 혁신상을 수여했다.

### 창의와 혁신의 상징

서남표 총장은 공리를 이용한 생산·설계이론의 창시자로서 플라스틱 제조공정, 금속제조 공정, 마모이론, 설계이론 등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이룩한 명망 있는 과학자다.

서남표 총장은 또한 탁월한 행정능력을 인정받아 미국 대통령 임명직인 미국과학재단의 공학 담당 부총재를 역임했고, 80년대 초반에는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안의 작성에 자문 역할을 했다. 또한 산업체 및 생산기술연구원의 고문을 역임하는 등 한국의 산학연 발전에도 큰 공헌을 해 왔다. 2006년 KAIST 총장으로 부임한 이후 ‘혁신’이라는 발전적 화두를 던지며 대대적인 교육 혁신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 교육 개혁의 선구자

서남표 총장은 2006년 KAIST 총장 부임 당시 10년 이내에 KAIST를 세계 10위권으로 진입 시키겠다는 확실한 목표를 세우고 대대적인 교육 혁신을 이끌고 있다.

그는 가장 먼저 학과장 임기를 없앴으며 인사와 예산 권한을 학과장에게 이양하여 책임 경영 체제를 구축, 학과 간 경쟁을 유도했다. 또한 특훈 교수 제도를 도입해 연한과 연령에 상관 없이 우수한 교수에게는 세계적인 수준의 대우를 보장했다. 이 밖에 ‘경쟁력 없는 교수가 학교를 병들게 한다’는 확고한 교육 철학 아래 연구 성과에 따라 정년을 보장하거나 퇴출하는 ‘테뉴어 제도’ 등을 도입해 교수진의 경쟁력을 높여 나갔다.

교육 시스템에서도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도록 했으며 외국 학교와 제휴해 한 학생이 두 개 이상의 학위 취득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학과 체제를 과학과 기술이 융합된 기능 위주로 개편하는 ‘KAIST 2단계 개혁구상안’을 발표했다. 그 주요 내용은 21세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오른 정보기술(IT), 생명공학(BT), 나노기술(NT)을 융합의 중심축으로 삼은 새로운 학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KAIST의 이러한 개혁 방안은 수십 년간 유지돼 왔던 교육 공급자 중심의 대학 조직 틀을 깨고, 특정한 목표와 성과를 달성하기에 적합한 기능 지향적 조직으로 변신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서남표 총장의 이같이 무한한 열정과 혁신적인 정신은 국내 타 대학들에도 변화와 세계화라는 발전적 화두를 던졌다.

이처럼 서남표 총장은 평생 동안 창의와 혁신을 몸소 실천하여 해외에서는 세계적인 석학으로 한국인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으며, 국내에서는 우리나라 대학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한 자랑스런 한국인이다.

그는 포니정 혁신상 수상 당시 부상으로 주어진 상금 1억 원 전액을 총장으로 재직 중인 KAIST의 학교 발전기금 확충을 위해 전액 기탁, 혁신상 수상의 의미를 더욱 뜻 깊게 했다.

- 1936 경상북도 경주 출생
- 1961 미국 MIT 대학교 기계공학 석사
- 1964 미국 카네기멜론 대학교 기계공학 박사
- 1965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학교 교수  
[1965~1969]
- 1970 미국 MIT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 1984 미국과학재단(NSF) 공학담당 부총재  
[1984~1988]
- 1987 미국과학재단(NSF)  
올해의 국가공학자상 수상
- 1988 미국과학재단(NSF) 우수 업적상 수상
- 1991 미국 MIT대학교 기계공학과 학과장  
[1991~2001]
- 1993 미국기계학회(ASME)  
마찰학 최고논문상 수상
- 2001 영국 공학설계원  
힐스 밀레니엄상 수상
- 2006 미 플라스틱공학회 종신 업적상 수상
- 2006 한국과학기술원 (KAIST) 총장

## 자립과 개척정신으로 지구촌의 행복을 꿈꾸다

2009년 제3회 포니정 혁신상 수상자

(사)가나안농군운동세계본부 (총재 김범일)



1991 방글라데시 가나안농군학교 설립  
2000 필리핀 가나안농군학교 설립  
2003 미얀마 가나안농군학교 설립  
2004 중국 단둥 가나안농군학교 설립  
2004 중국 왕청 가나안농군학교 설립  
2005 인도네시아 수까부미 가나안농군학교 설립

가나안농군운동세계본부는 아시아의 빈곤층에 절약정신과 개척정신을 전파함으로써 빈곤을 벗어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교육사업을 펼쳐나감으로써 아시아를 변화시켜 가고 있다. 또한 한국 농촌 부흥과 근대화, 의식개혁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면서 이를 아시아와 아프리카까지 확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3회 포니정 혁신상을 수상했다.

### 자립정신과 개척정신의 전파

가나안농군운동세계본부는 1973년부터 국민교육과 농민 복지사업, 농민운동 등을 펼쳐온 가나안농군학교의 해외 봉사 단체다. 가나안농군학교의 근로, 봉사, 희생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근검 절약하는 생활자세와 강인한 개척정신 등을 강조하는 의식개혁운동을 지구촌 곳곳에서 펼치고 있다.

1991년 방글라데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필리핀, 미얀마, 중국 등 모두 8곳에 해외 가나안농군학교를 설립해 빈곤층에 척박한 땅을 옥토로 개간하는 방법을 전수하며 자립정신과 근검 절약, 개척정신 등을 전파함으로써 빈곤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 인도, 라오스, 캄보디아, 가나, 우간다와 남미 국가에도 농군학교 설립을 추진 중이며 지역지도자 양성, 주거환경과 의료보건 및 농업기술 전수 등 생활 밀착형 개선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 다 함께 잘 사는 지구촌을 꿈꾸다

가나안농군운동세계본부는 1967년 일가(一家) 김용기 선생이 설립한 가나안농군학교를 모태로 하고 있다. 가나안농군학교의 가나안 정신, 즉 근로와 봉사, 희생 정신은 1970년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 농어촌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으로 인해 농어촌 교육의 필요성이 점차 감소하게 되자 1980년대부터 해외의 빈곤한 나라들을 대상으로 가나안운동의 방향을 선화하게 되었다. ‘아시아의 빈곤을 퇴치하자’라는 비전 아래 가나안농군운동세계본부를 설립한 이래 끊임없는 도전과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특히 가난과 기아로 고통 받는 개발도상국들에 자립정신과 개척정신을 널리 전파해 희망과 꿈의 가치를 일깨우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농군운동세계본부의 이러한 봉사와 희생정신은 국가 이기주의가 팽배한 현실에서 지구촌의 행복을 고민하고 앞장서는 한국인들의 박애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는 통로가 되고 있다.

김범일 가나안농군운동세계본부 총재는 혁신상 수상 당시 “가나안운동을 창시한 故 김용기 선생의 타계 1주년 무렵이었던 1989년, 정세영 회장이 원주 제2가나안농군학교를 방문해 전달했던 조의금은 방글라데시 농군학교가 세워지는 종잣돈으로 쓰이며 세계 가나안운동의 밑거름이 됐다”는 수상 소감을 통해 포니정 재단과의 남다른 인연을 밝혔다.

김범일 총재가 이끄는 가나안농군운동세계본부는 앞으로도 가나안운동을 아시아는 물론 아프리카, 중남미까지 확대시켜 세계 속의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나눔으로 커지는 사랑을 증명하다

2010년 제4회 포니정 혁신상 수상자  
차인표, 신애라 부부



1967 출생 (차인표)  
1969 출생 (신애라)  
1990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 졸업 (신애라)  
1991 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경제학과 졸업 (차인표)  
1995 결혼, 2010년 현재 슬하에 1남 2녀  
2001 유니세프 카드 후견인 (~2002, 차인표)  
2002 중앙아동보호기관 홍보대사 (~2006, 차인표)  
2003 굿네이버스 남북어린이 희망대사 (~2005, 차인표)  
2005 한국컴패션 홍보대사 (~현재, 신애라)  
2005 환경재단 선정 한국을 빛내는 100인 선정  
2006 한국컴패션 자원봉사자 (~현재, 차인표)  
2006 대한사회복지회 홍보대사 (~현재, 신애라)  
2006 대통령 표창 (아동복지관련, 차인표)  
2008 아산 봉사상  
2009 코리아 CEO 서밋 창조경영대상 봉사인 부문 대상 수상

## 주요 기부 및 봉사 활동 내역

1991 KBS 태풍 피해 의연금 5,000만 원  
2004 굿네이버스 남북어린이 복지기금 1억 원  
2005 전 세계 어린이 24명 및 대학생 6명과 1 대 1 결연, 후원 중 (~현재)  
2005 한국컴패션 사진전, 후원행사 및 자선행사 등 총 150여 회 참여 (~현재)  
2005 큰 딸 차예은 입양, 대한사회복지회  
2006 한국컴패션, 우간다 '태아/영아 생존 프로그램' 지원금 1억 원  
2007 한국컴패션, 리더십 결연프로그램 후원금 1억 원  
2008 둘째 딸 차예진 입양, 대한사회복지회  
2008 한국컴패션, 인도 오릿사 지역 피해복구금 5,000만 원  
2010 아이티 지진 긴급 복구기금 1억 원

제4회 포니정 혁신상을 수상한 차인표, 신애라 부부는 세계 각지의 환경이 불우한 어린이들을 후원하는 등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헌신해 왔으며, 특히 두 자녀를 공개 입양해 입양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을 없애는 데 크게 기여했다.

## 헌신과 사랑의 대명사

1995년 부부의 연을 맺은 연기자 차인표, 신애라 부부는 결혼 이후 왕성한 연기 활동과

더불어 사회에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와 기부, 후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함께해 오고 있다. 특히 이들은 아프리카(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중남미(아이티, 볼리비아), 동남아(필리핀) 등 세계 각지의 불우한 어린이 24명, 대학생 8명(이 중 2명은 졸업)과 1 대 1 결연 후원을 맺어 이들의 삶과 꿈을 돌보고 있다. 또한 직접 두 명의 아이를 공개 입양해 사랑으로 돌봄으로써 입양에 대한 우리나라의 오랜 사회적 편견을 없애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 현재도 이들의 봉사와 기부 활동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나눔의 정신은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고 풍요롭게 변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성숙한 국제시민의식, 내면이 아름다운 스타 부부

연기자 차인표는 1993년 MBC 공채 탤런트 22기로 발탁되었으며 드라마 〈한지붕 세 가족〉을 통해 데뷔했다. 1994년 MBC 미니시리즈 〈사랑을 그대 품 안에〉로 스타덤에 올랐으며, 이 작품에 함께 출연한 탤런트 신애라와 1995년 부부의 연을 맺었다. 차인표는 결혼한 후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현역으로 입대해 병역을 마침으로써 건강한 이 땅의 청년 정신을 확인시켰다.

연기자 신애라는 1989년 MBC 특채 배우로 선발되어 이듬해 같은 방송사의 드라마 〈사랑의 산책〉을 통해 데뷔했으며 드라마 〈사랑을 그대 품 안에〉 등을 통해 연기자로서의 탄탄한 입지를 다졌다.

이들 부부는 결혼 이후 왕성한 연기 활동과 더불어 사회에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 후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함께해 오고 있다. 북한 어린이 돕기, 고아 시설 지원 등 영·유아시설과 어린이 후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은 물론, 국내 보육원과 복지원 등을 찾아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기부에도 적극적인 이들은 남북어린이 복지기금, 우간다 태아·영아 생존 프로그램 지원금 등 다양한 기관에 활발히 기부를 함으로써 대중에게 나눔의 아름다움을 전파하는 나눔 전도사로 다가가고 있다. 차인표는 현재 아동학대 방지센터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신애라는 대한사회복지회 홍보대사로 활동 중이다.

이들 부부는 현재 세계 빈곤 아동들을 지원하는 컴패션에서 함께 활동하며 나눔과 헌신을 바탕으로 한 성숙한 국제시민의식의 귀감이 되고 있다. 또한 이들은 2005년과 2008년 봉사 활동을 통해 만난 한국의 아이 두 명을 각각 입양해 자신들이 낳은 아들과 함께 사랑으로 키우고 있다.

## 인문학의 미래를 후원합니다

탄탄한 기초학문은 모든 학문의 밑거름입니다

긴 호흡으로

지식과 사상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

진정한 혁신의 시작입니다

### 취지

포니정 재단은 국가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분야지만 그 동안 지원이 미비했던 기초학문 분야의 진흥을 위해 2009년도부터 인문역사학에 대한 학술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저력은 기초학문이라는 밑거름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느냐에 달려 있으며, 긴 호흡에서 기초학문 분야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믿음에 따른 것입니다.

### 선발 절차

매년 9월 포니정 재단에서는 학술지원 응모와 관련된 안내를 각 대학 역사학 관련 학과에 보내10월 초까지 교수님들의 연구 계획서를 접수 받습니다. 연구 계획서에는 본인이 연구 하고 싶은 분야와 목적, 세부 계획 등이 표기되어야 합니다.

제출된 연구 계획서는 각 대학 역사학과 학과장님들의 교차 평가와 재단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2개의 연구 주제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선정된 연구 주제에 대한 학술지원증서 수여식은 매년 12월에 개최되며, 이때 전년도에 지원을 받아 진행된 연구 주제에 대한 논문 발표도 함께 진행됩니다.

앞으로도 포니정 재단은 학술지원사업을 통해 강한 소신을 바탕으로 기초학문 분야의 발전을 주도하는 분들을 찾아 우리 사회의 귀감으로 삼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지원 내용

매년 두 개의 연구 주제를 선정해 각 주제별로 2,50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하며 연구 기간은 1년입니다.

## 인문학의 미래 - 포니정 학술지원 역대 지원자와 연구 주제

### 2009년

#### 연세대학교 사학과 최윤오 교수

##### 동아시아 역사적 도시공간의 형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18~19세기 중세 말 한국 농촌의 해체와 서울 도시로의 집중이 한국 근대화의 특징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하는 점을 과제로 제시 하면서 그것을 장기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정혜중 교수

##### 근대 동아시아 여성들의 해외 유학과 사회적 역할

19세기 말 20세기 중반 한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여성들의 해외 유학과 그들의 사회적 활동을 비교사적 관점에서 접근하며, 여성 유학생들의 기초 조사도 함께 진행된다.

### 2010년

#### 서강대학교 사학과 최기영 교수

##### 일제강점기 중국에서의 한국민족운동 연구

1920년대부터 해방될 때까지 중국에서 한국민족운동을 전개한 두 인물을 중심으로 재중 독립운동의 일단을 살펴보고 당시 중국 유학과 독립운동 사이의 관련성을 조명한다.

####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함동주 교수

##### 1920~30년대 동아시아 모던문화와 근대체험

일제 강점기였던 1920~30년대 동아시아에 풍미한 문화 풍조, 즉 모던문화를 주목하고 그러한 문화 경험의 다양한 실태와 역사적 의미를 검토한다.

# 18~19세기 중세 말 근대 초 지방도시의 발달과 해체

2009년도 학술지원 대상 연구 논문 요약

연세대학교 사학과 최윤오 교수

## 서론

동양, 특히 한국의 중세 도시 해체와 근대 도시로의 이행 과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서양과 비교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조선 후기 이래 일제 하, 그리고 해방 후 현대사회에 이르는 시기의 한국만의 도시 발달 과정을 정리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한말 일제 하를 거치면서 발달된 개항장과 식민 도시의 발달이 한국 근대 도시의 첫 장이었다면, 해방 후 분단 시기의 남북 도시 발달이 그 두 번째 장으로 제시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19~20세기 충북 진천과 충주 지방의 농민층 분해 현상을 통해 중세 지방 도시의 해체 양상을 주목하고 나아가 근대 도시의 발달 과정을 전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농촌의 해체와 서울 도시로의 집중이 한국 근대화의 특징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하는 점을 과제로 제시하면서 그것을 장기적으로 추적할 예정이다.

본 연구는 서울과 가까운 충청북도 진천과 충주지방의 〈광무양안〉(1901, 토지대장)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고 그 결과물을 통해 지방 도시의 해체 양상을 추출하기로 한다.

## 조선 후기 유통망의 발달과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

### 장시 유통망의 확산과 발달, 청주와 충주의 장시 유통망

19, 20세기 도시의 발달은 사회적 생산력 발달과 상품화폐 경제 확대를 배경으로 더욱 확대되고 있었다.

첫 번째로 주목되는 양상은 각 지역 농민의 잉여 생산물이 상품화되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지주나 부농을 포함한 농민층의 농업 경영은 물론 16세기 이래 이양법의 전국적 확대와 노동력 절감, 그리고 발농사에서의 상품 작물 재배 등에 의해 촉진되고 있었다.

두 번째로는 상품화폐 경제 발달을 촉진시킨 요소로서 장시의 발달과 포구 유통망의 발달을 주목할 수 있다. 유통망의 발달은 이전 시기보다 양적, 질적으로 훨씬 확산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즉 청주나 충주의 경우를 보더라도 인근 장시를 연결하던 5일장이 점차 확대되면서 대장시(大場市)를 형성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상업의 발달과 도시의 발달을 가져왔다. 특히 서울 종로통의 시전 상인을 중심으로 전국의 유통망이 거미줄처럼 연결되는 가운데 그 거점 도시가 완만하게 확대되기 시작했다.

### 연안 포구 유통망의 확대, 청주와 충주의 포구 유통망

조선 후기 이래의 포구 유통망은 서울로 연결되는 바닷길과 연안 포구의 관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청주와 충주의 포구 유통망은 금강과 남한강을 중심으로 서울로 연결될 수 있었다.

충주의 경우 남한강 상류의 상품 유통 중심지였을 뿐 아니라 충청도 최대의 장시로 알려져 있다. 개시일도 5일장의 두 배였다. 남한강 수운을 이용해 서울에 이를 수 있을 뿐 아니라 원주, 제천 그리고 여주, 이천, 광주 등의 지역과 연결이 쉬운 지역이다. 충주의 경우는 단일 군현 중심의 유통 경제가 아니라 그 울타리 경계를 넘어 보다 광역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전국적 유통망의 확대는 1876년 개항을 전후한 시기의 국교 확대를 통해 더욱 확산될 수 있었지만 제국주의 열강의 자본과 상품 침투에 직면하면서 하락세로 접어들게 되었다. 특히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은 이 같은 상품화폐 경제의 내적 확산 과정을 왜곡시키는 가운데, 일본 자본과 상품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으로 재편된다.

19, 20세기 동아시아 시장 질서의 재편 과정은 동아시아 시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자본주의 시장의 재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품 시장이 재편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바탕은 한국 고유의 시장 유통망을 전제로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지방도시의 분화 양상 진천, 충주를 중심으로

### 진천양안 하층농민의 몰락과 지주부농층

상품 경제의 발달과 함께 지주제의 확대는 이 시기 농촌사회를 해체시킨 주요 요인으로 등장했다. 지주제의 발달과 농민층의 몰락은 중세사회 전 시기를 걸쳐 진행되어 오던 것보다 더욱 가속, 확산되고 있었다.

### 〈표〉진천군 농민층의 소유·경영 분해표

(단위: 명)

| 경영(정보)       | A    | B     | C     | D     | E     | F     | G     | H      | I      | J     | K    | 총계(명) |
|--------------|------|-------|-------|-------|-------|-------|-------|--------|--------|-------|------|-------|
| 소유(정보)       | 0    | 0.1   | 0.5   | 1.0   | 1.5   | 2.0   | 3.0   | 5.0    | 10.0   | 20.0  | 50.0 |       |
|              |      | - 0.5 | - 1.0 | - 1.5 | - 2.0 | - 3.0 | - 5.0 | - 10.0 | - 20.0 | -50.0 | -100 |       |
| a 0          | 11   | 3279  | 554   | 155   | 51    | 36    | 7     | 4      | 1      |       |      | 4098  |
| b 0.1- 0.5   | 1330 | 3495  | 765   | 309   | 118   | 77    | 22    | 4      | 1      |       |      | 6121  |
| c 0.5- 1.0   | 235  | 216   | 701   | 245   | 109   | 79    | 21    | 3      |        |       |      | 1609  |
| d 1.0- 1.5   | 89   | 78    | 101   | 237   | 72    | 69    | 27    |        | 1      |       |      | 674   |
| e 1.5- 2.0   | 35   | 36    | 29    | 54    | 83    | 57    | 26    | 2      |        |       |      | 322   |
| f 2.0- 3.0   | 33   | 38    | 29    | 37    | 52    | 101   | 35    | 6      |        |       |      | 331   |
| g 3.0- 5.0   | 31   | 36    | 24    | 17    | 21    | 39    | 47    | 10     |        |       |      | 225   |
| h 5.0- 10.0  | 13   | 28    | 15    | 13    | 16    | 18    | 25    | 10     | 1      |       |      | 139   |
| i 10.0- 20.0 | 1    | 11    | 8     | 4     | 7     | 4     | 11    | 3      | 1      |       |      | 50    |
| j 20.0- 50.0 | 2    | 3     | 2     | 1     | 2     | 1     | 4     | 3      |        |       |      | 18    |
| k 50.0- 100  | 1    |       |       |       |       |       |       |        |        |       |      | 1     |
| 총계           | 1781 | 7220  | 2228  | 1072  | 531   | 481   | 225   | 45     | 5      | 0     | 0    | 13588 |

진천의 농민층 분해 양상은 〈표〉 '진천군 양안의 소유·경영 분해표'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표에 나타난 진천군 1만 3,588명에 대한 소유와 경영 분해 양상은 100년 전 진천에서 활동했던 농민의 토지 소유 면적과 인원 수의 상관관계를 의미한다.

좌측변의 소유 면적(a~k)과 우측면(A~K)의 경영 면적을 중심으로 각각의 농민은 농업 경영을 어떠한 방식으로 꾸려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최하층민 bB(3,495명)은 0.5정보(1,500평/4,959m<sup>2</sup>) 이하의 토지를 소유하면서 동시에 0.5정보 이하의 토지를 경영하는 농민층이다. 최저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든 농민이라고 할 수 있다.

농촌 사회 해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층은 상층의 지주부농층보다는 하층의 소빈 농층이다. 소빈농층은 전체 진천 농민 1만 3,588명의 86.8%에 해당한다. 이는 진천 지역의 빈곤화 형태를 잘 반영해 주고 있다.

이들 가운데 중농층을 제외한 최하층농(aA, aB, bA, bB)은 총 8,115명으로 전체 농민의 59.7%를 차지한다. 최하층 농민이야말로 토지 소유는 물론 경작지 면적도 0.5정보 미만으로, 언제라도 토지로부터 이탈할 수 있는 농민층이다.

이들 하층농민의 농촌 거주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을 나타내 준다. 곧 상업 발달과

도시의 확대에 따라 도시로 탈출할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소빈농층의 비율은 당시 농촌 사회의 전반적인 몰락 현상을 보여준다. 상층에는 지주부농층이 자리잡게 되지만 하층에는 몰락 농민층이 양산되면서, 고용처를 기다리는 몰락 농민이 농촌 사회를 분해시키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었다.

이 같은 양극 분해와 하층농민의 확산 형태야말로 중세 말 농촌 사회의 전형적인 존재 형태라 할 수 있다.

(충주 양안의 하층농민의 몰락과 지주부농층 전략)

## 결론

### 중세도시의 해체 양상

19세기 말 20세기 초 농촌 사회는 분해되고 있었으며 나아가 지방 도시 역시 분해되고 있었다. 〈광무양안〉에 나타난 하층 농민층의 존재 형태는 이 같은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도시의 발달은 거시적으로 보면 대도시의 발달과 농촌 사회의 분해가 전제된다. 농촌 사회의 분해란 농민층의 분해를 수반하며, 대다수 농민층의 몰락과 그들의 노동자화 과정을 보여준다. 이 같은 양상을 잘 보여주는 것이 양안의 농민층 분해 양상이다.

진천이나 충주 양안 분석의 결과 이러한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진다. 진천보다 충주의 경우 부농층의 비율이 높고, 빈농층의 경우 더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한 배경은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겠지만, 가장 먼저 주목되는 것이 상품 경제의 발달과 자본 축적 과정의 양상이다.

진천의 유통망은 내륙의 장시 유통망으로 한정된 것에 비해, 충주의 유통망은 남한강 포구유통망을 통해 서울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상품 유통의 차이가 존재한다. 특히 충청도 충주 양안에 나타난 지방 도시의 발전 양상은 서울의 발전과 상호 보완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충주의 상층부 지주부농층에 비해 하층부 몰락 농민의 도시 이주 방식은 서울의 발달에 따라 대규모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방 도시 진천이나 충주의 경우 여타 지방 도시의 경우와 비교되어야 하지만 진천과 충주의 사례 분석 결과 지방 도시의 해체 양상은 폭풍 전야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지방 도시에 대한 양안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들 하층 농민들의 동향이다. 이들 하층 농민 노동자에게는 생계를 제공해 주는 새로운 근대 도시, 근대 체제가 필요했던 것이다.

진천과 충주 양안을 통해 지방 도시 농촌의 존재 형태를 살펴보고, 그를 통해 중세 말 도시 해체 양상을 검토해 보았다.

하층 농민의 대량 확산은 새로운 근대 도시 건설과 체제개혁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러한 도시의 발달은 한국적 시장의 특성에 따라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 근대 동아시아 여성들의 해외 유학과 사회적 역할

2009년도 학술지원 대상 연구 논문 요약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정혜중 교수

## 머리말

이 연구는 19세기 말 20세기 중반 한국 및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여성들의 해외 유학 및 그들의 사회적 활동을 비교사적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다.

한국, 중국, 일본의 여성들은 제도적으로 교육, 사회적 진출, 직업 선택, 의사 표현의 자유와 기회 등이 억압되거나 묵살되었으며, 전통적 윤리관에 의해 사회활동이 제약되었다. 여성 해외 유학생들은 그 자체로 사회의 여성 선각자이자 지식인이었으며, 가족, 사회, 국가의 중층적 구조 하에서 새로운 시대의 개척자로 기능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한국과 중국은 일본 제국주의와 서양 열강에 의해 각각 식민지, (반)식민지 상태에 놓였고, 두 나라의 여성 해외 유학생들은 전통적 질서에서의 여성 해방, 교육권, 참정권 확보라는 보편적 요구 외에도 당면하는 민족 해방이라는 요구에 부응하게 되는 공통점을 지녔다.

이 두 나라의 여성 해외 유학생들이 어떤 방식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으며, 유학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돌아와 수행한 사회적 역할은 어떤 파장과 의미를 지녔는가 하는 점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과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한국과 중국 여성, 그리고 일본의 초기 여자 유학을 중심으로 해외 유학의 동기 및 배경, 그리고 유학 장소에서의 학습 내용과 귀국 후의 사회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 한국 여성의 일본·미국 유학

### 일본 유학

한국 여성의 일본 유학은 18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다. 최초의 유학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고, 다만 1895년 김씨 여성(남편과 같이 도일(渡日)한 뒤 일본인에게 조선어를 가르침), 1896년 박묘옥(朴妙玉, 1895년 부친 박영효의 일본 망명에 동행), 1898년 윤정원(尹貞媛, 대한자강회 부회장 윤효정의 딸) 등의 유학 사실이 단편적으로 확인될 뿐이다. 1900년대 초까지도 여성의 유학은 그리 흔한 편이 아니어서, 1909년 무렵 일본에 있었던 212명의 한국 유학생 중 여학생은 9명에 불과했다.

한국 여성의 일본 유학이 증가되기 시작한 것은 1910년대부터였으며, 1920년까지 대략 30~40명 정도의 규모는 꾸준히 유지하고 있었다. 여자 유학생 수는 20년대에 약 100~200여 명 수준으로 증가되었으며, 30년대에는 최대 1,000여

명 규모에 이르렀다.

1910년대 여성들의 초기 유학 단계에서 관비 유학이 실시된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여성 교육에 대한 국가의 의지나 필요성 인식이 매우 낮았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이 1871년부터 여성들의 외국 유학을 추진하고, 중국 또한 19세기 초부터 여성들에게 관비로 서양에 유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던 것과도 분명하게 대조된다.

사실 한국 정부가 교육 정책 속에 여성들을 적극 포용시키기 시작한 것은 1908년부터였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1910년대 여성 유학생의 규모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의학대와 사범학교에 진학해 학습했으며 그 외 음악, 신학, 문학, 미술 등의 분야를 선택해 전공했다. 여학생들은 일본 유학 중에 ‘여자친목회’ 등의 단체를 조직해 상호 친목을 도모하는 한편, 학문적인 발전을 추구했다. 또 잡지 〈여자계〉를 간행해 자신들의 생각을 발언하려는 시도를 했다. 초기에 간행된 〈여자계〉가 여성의 역할을 가정 내로 국한시키며 남성 중심의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했다면 후기에는 여성해방론을 제기하면서 기왕에 여성들을 속박했던 모든 질서를 타파하고 새로운 도덕 사회를 세울 것을 주장했다. 여성들이 인격체로서, 주체로서 진정한 자각을 이루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논의로 끝났을 뿐 구체적 실천 방법은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과연 일반 여성들을 설득할 수 있을 만큼의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었는가의 문제가 있었다. 또한 여성 문제를 사회 구조적으로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다만 기존 가족 제도의 모순을 타파하는 데에만 일조한 것은 아닌가 싶다. 무엇보다도 여성들 내부에서조차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다양한 분화 과정만을 드러낸 것은 향후 여성 단체 활동의 분열과도 연계된다.

### 미국 유학

한국 여성 가운데 최초의 미국 유학생은 박에스터(김점동)이었다. 박에스터는 1895년 미국에 건너가 1896년 볼티모어 여자과대학에 입학했고 1900년에 귀국해 의사로 활동했다. 이후 하란사가 1896년 1년간 일본에 유학한 후 1900년 미국 오하이오주 웨슬리안 대학 영문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차미리사를 비롯해 임영신, 서은숙, 김활란 등이 미국 유학생으로 이름을 올렸다.

1900년대 초 신문 매체와 소설 속에 여성들의 서구 유학이 등장한 이래, 1919년 3.1운동을 기점으로 여성들의 미국 유학이 증가했다. 본 연구 과정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제 하 도미 유학 여성의 숫자는 총 150여 명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들은 고등 교육 이수자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선택 받은 사람들이었다. 식민지 한국의 일반 여성과는 다른 교육·사회적 지위를 형성했으며 한국 여성의 교육·사회적 지위 피라미드에서 최상층에 위치하고 있었다.

일본 유학생과 비교한 미국 유학생들의 특징은 사상적으로 온건한 진보주의자이며 철저한 개인주의자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의 활동 기반은 교회·선교회가 경영하는 학교, 병원, 기독교년회 등 문화사업 등이었다. 미국 선교회가 유학생 파견에 관여한 결과, 미국 유학생의 전공도 대부분 이런 필요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졸업 후의 활동도 그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미국 유학생은 숫자가 적은 관계로 사회의 이목에 완벽하게 노출되었다. 때로는 미국과 일본 유학생 가운데 누가 한국을 위해 더 봉사할 것인가가 논의되기도 했지만 미국 유학생들은 일본을 통해 수입, 중역(重譯)된 서양이 아닌, 직접적으로 서양 학문을 소개하는 장점을 지녔다고 평가되기도 했다. 그런데 결혼하지 않은 여성 유학생에 대한 언론의 관심과 관여는 인격 모독에 가까운 것이었다.

미국에서 돌아온 여성 유학생들은 기독교, 여성, 교육, 문화 분야에서 주로 활동했으며 과격, 급진, 혁명적 방식이 아니라 일상적, 현실주의적, 개량적 노선을 추구했다. 즉 여성해방운동과 같은 급진적 사회운동과는 거리가 있었다. 귀국 후 이들의 정치적 활동 및 독립운동 관여는 크지 않았으며, 도미 여성 유학생들의 사회적 역할은 해방 후 미 군정 시작과 함께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되었다.

## 중국 여성의 일본, 미국 유학

중국 여성들의 유학이 시작된 것은 1898년 무술변법 이후였고 주요 대상지는 일본이었다. 일본에 유학한 여학생들이 가장 많았던 1911년 신해혁명 전후는 중국의 전환기였다. 따라서 이 시기 일본에 유학한 여학생들은 다양한 혁명 활동에 참가해 여성운동사에 중요한 자취를 남겼다. 일본으로 유학 간 여성들은 혁명사상에 접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았으나 1909년을 기점으로 전문 교사 혹은 의학을 학습하는 등 유학 내용 자체에 많은 변화를 보인다.

중국 여성의 미국 유학은 1860~70년대 김아매(金雅妹)와 강애덕(康愛德), 석미옥(石美玉) 및 오금영(鳴金英)이 미국으로 건너가 공부한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선교사와의 인연이라는 관계로 얹혀 있으며 김아매를 비롯한 이들 여의사들은 무술변법 이전에 미국 유학에서 돌아와 의술 활동에 종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김아매가 젊은 시절 주로 일본을 거점으로 의료활동을 했던 것과는 달리 강애덕, 석미옥은 미국에서의 유학 생활이 비교적 짧고, 대학 졸업 후 바로 고향을 중심으로 의료 활동에 종사했다. 하지만 이렇게 선교사들의 후원을 받아 학습한 경우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여자들을 위한 관비 유학은 20세기에 들어와서 비로소 실천되었다. 1908년 5월 미국 국회에서는 의화단에 참가한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받는 배상금으로 중국 유학생을 유치할 것을 결정, 1909년 6월 북경에 유미학처(遊美學處)를 설치하고 학생을 선발했다. 이후 1925년까지 남자는 총 800여 명이 미국 유학을 하게

되지만 여자 미국 유학생은 1914년부터 1921년까지 총 43명에 불과했다. 선발된 여자 유학생들은 의학, 교육, 문학, 음악에 관한 학습을 했는데 이러한 경향은 당시 일본 유학에서의 과목 선택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도 주목해 볼 만하다.

미국으로 유학 간 최초의 관비 유학생 10명 중 진형철(陳衡哲)은 바싸(Vassar College) 여자대학에서 서양사와 서양문학을 전공했다. 1918년 그는 문학을 취득하고, 시카고 대학에서 계속 공부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북경대학 최초의 여자 교수로 부임했으며 역사 연구와 함께 작가 겸 시인으로 활동했다.

당시 미국에는 중국의 관비·사비 유학생이 상당한 규모였는데, 1914년만 하더라도 1,300명의 유학생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이 중 여학생은 94명이었다. 1925년에는 2,500명에 달하고 그 중 여학생이 640명 즉 25.6%를 차지하게 되어 절정을 이뤘다. 이들은 의학, 간호, 치과, 체육, 문학, 음악, 정치, 경제, 물리, 수학, 사회, 미술, 신문, 화학, 종교학, 가정학 등을 학습하는 등 다양한 분야를 전공하면서 자아개발의 꿈을 실현시켜 갔다. 이들은 다양한 새로운 학문에 접하며 신식학문 학습을 통해 중국의 학계, 의료계, 교육계에 적지 않게 공헌했다.

(일본 여성의 해외 유학 전략)

## 맺음말

한국, 중국, 일본은 19세기 초중반 서구 열강의 진출 과정에서 서구 문명 수입에 근거한 부국강병과 근대화 전략을 추진했으며, 한국에서는 동도서기(東道西器), 중국에서는 중체서용(中體西用), 일본에서는 화혼양재(和魂洋才)를 전개했다.

당시 동아시아 국가는 산업혁명을 겪은 서구 제국의 근대문화를 캐치업(catch up)하는 것이 공통적 목표였고, 이를 위해 내부적 개혁 전략의 추진과 인재들의 서구 유학을 통한 인적 자원 양성을 추진했다.

일본은 이와쿠라(岩倉) 사절단(1871~1873년)으로 대표되는 대규모 사절단과 유학생을 파견하기 시작했고, 중국 역시 1870년대 유미유동(留美遊童)으로 불린 120여 명의 소년 유학생을 미국으로 파견했다. 양적 규모와 질적 수준에서 일본이 중국과 한국을 압도했다.

한국과 중국에서는 선교사를 통한 소수의 혜택을 제외한다면 여성들의 유학 기회는 20세기에 들어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비교적 빠른 시기에 여성들에게 관비 유학을 통해 여성 교육의 기초를 다져가고자 했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에서는 소수의 선각 여성들이 일본 유학을 통해 여성의 지위 향상과 구국(救國) 의지를 키워가고 있었다.

동아시아 각국에서 근대 시기를 대상으로 해외 유학을 주제로 다루는 개별적 연구는 많았으나 대부분이 남성의 일본, 미국 유학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었다.

동아시아 여성 유학생에 대한 전면적 연구는 부재한 상황에서 근대 시기 동아시아 여성들의 일본, 미국 유학에 대한 기초 연구는 연구사적 의의를 갖고 있으며, 여성 유학생 개개인에 대한 기초 조사와 명단을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했다는 데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다.

## 일제 강점기 중국에서의 한국민족운동 연구

서강대학교 사학과 최기영 교수

### 미답의 영역, 중국 유학생들의 독립운동 궤적을 추적하다

일제 강점기, 중국에서 한국민족운동을 전개한 인물들은 독립운동사에서 자주 거론됨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 유학생들의 독립운동 연구에 비해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바 없는 미답의 분야다.

이에 서강대학교 사학과 최기영 교수는 '일제 강점기 중국에서의 한국민족운동 연구'를 연구 주제로 정해 1920년대부터 해방될 때까지 중국에서 활동한 유기석과 김학무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북경 등지에 유학한 한국인들과 독립운동의 관련성을 함께 찾아보고자 한다.

### 유기석과 김학무, 두 민족운동가를 통해 탐구하는 재중 독립운동의 일단

본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유기석과 김학무는 일제 강점기 당시 각기 북경과 남경의 대학에서 수학한 유학생들이다. 그들은 모두 한국민족운동에 이론적인 관심을 지녔으며 무장투쟁에도 적극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기석은 홍사단 계열이지만 무정부주의자로 활동하며 한국독립운동에 관련된 의열투쟁과 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했고, 무정부주의에 관한 논설도 남긴 바 있다. 그는 해방 이후 일시 귀국하기도 했으나 중국에서 대학 교수로 있으며 한국사 연구에도 기여했다.

김학무는 민족주의 계열로 출발했으나 1930년대 중반부터 사회주의에 동조했으며 무장단체인 조선의용대를 주도한 인물 가운데 하나였다. 그는 1940년대 중국공산당 지역에서 결성된 화북독립동맹에 참여했다가 해방 전에 사망했으며 〈조선근대혁명운동사〉라는 저술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모두 민족주의에서 출발하여 무정부주의와 공산주의로 옮겨 민족운동을 전개했다. 그러한 사상적 변화는 중국에서의 교육이나 교류와 무관하지 않았으리라는 판단에 따라 이들의 활동과 사상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찾고, 재중 독립운동의 일단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해 1920~30년대 중국에서의 한국 유학생의 실태를 살펴보고, 한국 유학생과 민족운동의 연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작업을 통해 한중 관계사와 한국 독립운동사, 그리고 한국사학사 연구의 영역과 지평을 확대하는 등 학문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1920~30년대 동아시아 모던문화와 근대체험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함동주 교수

### 1920~30년대 동아시아, 근대적 문화 경험의 역사적 의미를 주목하다

1920~30년대 동아시아의 역사적 위치를 고찰함에 있어 대부분의 연구는 정치적 움직임과 역할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이에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함동주 교수는 일제 강점기였던 1920~30년대 동아시아에 풍미한 문화 풍조를 주목하고, 그러한 문화 경험의 다양한 실태와 역사적 의미를 검토할 예정이다.

함동주 교수의 연구 주제인 '1920~30년대 동아시아 모던문화와 근대체험'에서는 도시 문화를 주도한 '모던문화'의 성립과 전개 양상을 도시대중, 서구문화, 일상생활 세 가지 관점에서 연구한다.

### 모던문화를 탄생시킨 도시 대중과 서구문화

1920~30년대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도시 대중이 문화 주체로 등장하고, 서구문화가 문화 요소로 수용되면서 모던문화의 탄생에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에 대해 아래 네 가지 주제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첫째, 도쿄의 샐러리맨 가정을 통해 본 근대적 소비자의 탄생과 '모던문화'

둘째, 1920~30년대 여성잡지 〈主婦之友〉와 〈Ladies' Home Journal〉의 비교와 분석을 통해 본 '모던여성'

셋째, 상하이의 '모던걸·모던보이'는 퇴폐의 온상인가, 새로운 삶의 패턴인가?

넷째, 서구적 가정관의 수용과 전파, 상하이의 신가정

위의 연구는 1920~30년대의 모던문화를 일상생활의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20세기 전반기와 후반기의 역사적 연속성을 밝히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 인문학 지원은 이 나라의 희망을 키우는 일이죠

2010년 학술지원 대상 연구자

### 서강대학교 사학과 최기영 교수

포니정 재단은 기초학문 분야의 진흥을 위해 사학과에 대한 학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2010년, 학술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서강대 사학과 최기영 교수는

‘일제 강점기 중국에서의 한국민족운동 연구’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기초학문에 대한 지원이야말로 이 나라를 건강하게 키우는 희망의 씨앗이라고 말하는

최기영 교수를 만나본다.



#### 인문학,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의 계기

“기초학문에 대한 지원은 이공계열이나 실용학문과는 달리 그 효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산업화된 사회를 기술과학만으로는 이끌 수 없지요. 인간과 인간의 정신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가 무엇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포니정 재단의 기초학문 지원은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성과를 드러내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서강대학교 사학과 최기영 교수는 포니정 재단의 기초학문에 대한 관심이 비단 자신의 연구를 독려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학술 재단이나 연구자들에게도 큰 용기와 힘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최기영 교수는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에서 활동한 한국 민족운동자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논문을 발표해 왔다. 올해 안식년을 맞은 그는 포니정 재단의 지원 아래 보다 체계적인 학술 연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 우리의 오늘은 시대를 앞서 고민한 이들이 만든 것

이번 연구에서 그가 주목한 중국 유학생 출신 독립 운동가는 류기석과 김학무 두 명이다. 류기석은 흥사단을 거쳐, 남화한인청년연맹 등 무정부주의 단체 등에서 활동했고, 김학무는 조선의용대와 독립동맹의 주도자였다. 이들은 모두 민족주의에서 출발해 무정부주의와 공산주의로 옮겨 민족운동을 전개했다.

“두 독립 운동가의 사상적 변화는 중국에서의 교육과 무관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선 이들의 활동과 사상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찾고, 재중 독립운동의 일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 앞으로 미국에서의 독립운동에 대해서도 연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1940년대 중반부터 1956년까지 <독립>이라는 주간지를 발간 하며, 해방 이후 친북한적인 경향을 보였던 이들이 사회주의에 경도되었던 배경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 연구 활동으로부터 그는 그 동안 주목되지 않았던 중국 유학생들과 그들의 독립운동을 연구하고, 그 의의를 되찾고자 한다. 국권을 빼앗긴 상태에서 스스로 혁명의 선봉에 서는 것은 시대를 고민하는 청년들의 사명인 바, 그런 움직임들이 모여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뤘다는 사실을 이 시대의 젊은이들과 공유하고픈 것이 그의 궁극적인 연구 목적이다.

#### 열정과 도전정신, 변하지 않는 가치

주목 받지 못한 역사의 단면을 묵묵히 연구하고 고민하는 최기영 교수와 같은 인문학자들의 노력은 이 시대와 사회에 정신적 성숙이라는 가치가 뿌리내리도록 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최기영 교수는 마지막으로 정세영 회장이 몸소 실천해 보인 열정과 도전정신의 가치를 강조하며 이야기를 매듭짓는다.

“정세영 회장은 희망을 현실화시킨 분이고, 그 분의 도전정신과 열정은 우리에게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지요. 오늘날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도전정신과 열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 분의 정신을 이어받아 인문학 분야의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인재의 오늘은 세계의 미래입니다

포니정 장학금은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장학 제도입니다. 포니정 장학생은 학업 성적과 인성이 우수하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측의 추천을 받아 재단의 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하고 있습니다.

포니정 재단에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성장 잠재력은 풍부하지만 경제 여건이 열악한 베트남에서도 현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7학년도부터 시행된 포니정 장학사업을 통해 2010학년도 현재까지 장학생 4기가 선발되어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간 국내에서 총 134명의 대학생과 베트남에서 총 140명의 대학생이 포니정 장학금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 국내 장학금

#### 취지

정세영 회장의 경영철학인 인재 중시 철학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우리 사회의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하고자 내일의 주역이 될 인재를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선발 절차

매년 10월 포니정 재단에서 지정하는 대학에서 공개 모집한 재학생을 추천 받아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진취적 기상을 지닌 학생 중 학자금의 조달이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최종 선발합니다. 대학 2~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장학금 지급 기간은 1년이지만 재단의 심사를 통해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최종 선발된 장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2월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합니다.

#### 지원 내용

선발된 장학생들에게는 1년간 대학 등록금 전액이 지원됩니다. 그 외에도 매년 어학시험 응시 비용을 지원해 주며 해외 견학, 국내 워크샵, 봉사활동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포니정 재단은 장학사업을 통해 앞으로 제2의 포니정이 될 세계적, 혁신적 인재가 계속 발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 역대 장학금 규모

- 2007년 1기 33명 1억 8,605만 원
- 2008년 2기 33명 1억 9,837만 7,000원
- 2009년 3기 24명 1억 8,255만 4,000원
- 2010년 4기 24명 1억 9,322만 3,000원

### 베트남 장학금

#### 취지

빠른 경제 성장을 통해 눈부신 국가 발전을 계속하고 있는 베트남의 미래 개척 의지는 정세영 회장의 도전정신과 맥을 함께 합니다. 이에 포니정 재단은 베트남의 미래 주역이 될 대학생들에게 정세영 회장의 정신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파함으로써 이들이 새로운 신화를 써 나갈 수 있도록 해외 장학사업의 첫 대상 국가로 베트남을 선정했습니다.

#### 선발 절차

포니정 재단은 국제적 감각, 성적, 가정 형편 등을 기준으로 베트남 포니정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호치민 국립대학과 베트남 하노이 국립대학에서 각각 30명의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을 추천 받은 뒤 재단에서 최종 심사를 거쳐 장학생을 확정합니다.

매년 9월 학교측에서 1차 후보자 선발 과정을 거치며 재단에서 10월 초에 장학금 수혜자 명단을 최종 확정하고, 10월 말 혹은 11월 초에 각 학교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 지원 내용

1년간 대학 등록금 전액 및 생활비가 지원됩니다.

#### 역대 장학금 규모

- 2007년 호치민 대학교 20명, 1만 달러
- 2008년 호치민 대학교 30명, 하노이 대학교 30명, 3만 달러
- 2009년 호치민 대학교 30명, 하노이 대학교 30명, 3만 달러

## GREAT INNOVATION

장학사업 포니정 장학생 명단

## 포니정 국내 장학생

## 1기 포니정 장학생 (33명)

## 2006년 선발 / 2007년 장학금 지급

| 성명  | 학교    | 전공 |
|-----|-------|----|
| 강민구 | 충북대학교 | 토목 |
| 국정근 | 전북대학교 | 건축 |
| 권오훈 | 한양대학교 | 토목 |
| 김경태 | 고려대학교 | 토목 |
| 김로사 | 서울대학교 | 건축 |
| 김무광 | 부산대학교 | 토목 |
| 김상범 | 연세대학교 | 토목 |
| 김우주 | 서울대학교 | 건축 |
| 김은성 | 한양대학교 | 건축 |
| 김창환 | 부산대학교 | 건축 |
| 김호택 | 강원대학교 | 토목 |
| 두병혁 | 전북대학교 | 토목 |
| 박성기 | 연세대학교 | 건축 |
| 박승범 | 충남대학교 | 토목 |
| 박준현 | 충남대학교 | 토목 |
| 박진석 | 경북대학교 | 건축 |
| 배태현 | 경북대학교 | 건축 |

1기 포니정 장학생 지급 총 금액 ... 1억 8,605만 원

## 2기 포니정 장학생 (33명)

## 2007년 선발 / 2008년 장학금 지급

| 성명  | 학교    | 전공 |
|-----|-------|----|
| 강민구 | 충북대학교 | 토목 |
| 강수진 | 전남대학교 | 건축 |
| 고승세 | 한양대학교 | 건축 |
| 국정근 | 전북대학교 | 건축 |
| 김경태 | 고려대학교 | 토목 |
| 김로사 | 서울대학교 | 건축 |
| 김무광 | 부산대학교 | 토목 |
| 김상범 | 연세대학교 | 토목 |
| 김창환 | 부산대학교 | 건축 |
| 김형구 | 충북대학교 | 건축 |
| 김호택 | 강원대학교 | 토목 |
| 박성진 | 강원대학교 | 건축 |
| 박승범 | 충남대학교 | 토목 |
| 박진규 | 서울대학교 | 건축 |
| 박진석 | 경북대학교 | 건축 |
| 박춘구 | 한양대학교 | 토목 |
| 백초롱 | 부산대학교 | 건축 |

2기 포니정 장학생 지급 총 금액 ... 1억 9,837만 7,000원

| 성명   | 학교    | 전공 |
|------|-------|----|
| 안지훈  | 전남대학교 | 건축 |
| 윤진수  | 한양대학교 | 토목 |
| 이경무  | 전남대학교 | 건축 |
| 이민표  | 충북대학교 | 건축 |
| 이소피아 | 서울대학교 | 토목 |
| 이제원  | 연세대학교 | 건축 |
| 이준희  | 충남대학교 | 건축 |
| 임용규  | 전남대학교 | 토목 |
| 장윤덕  | 충북대학교 | 건축 |
| 전종갑  | 강원대학교 | 건축 |
| 정경인  | 고려대학교 | 토목 |
| 조현곤  | 경북대학교 | 토목 |
| 진성현  | 부산대학교 | 토목 |
| 채수환  | 전북대학교 | 토목 |
| 최윤훈  | 강원대학교 | 토목 |
| 풍경아  | 고려대학교 | 건축 |

| 성명   | 학교    | 전공 |
|------|-------|----|
| 안지훈  | 전남대학교 | 건축 |
| 윤진수  | 한양대학교 | 토목 |
| 이동현  | 전북대학교 | 토목 |
| 이소피아 | 서울대학교 | 토목 |
| 이재민  | 경북대학교 | 건축 |
| 이준희  | 충남대학교 | 건축 |
| 인상현  | 연세대학교 | 건축 |
| 임수연  | 충남대학교 | 건축 |
| 임용규  | 전남대학교 | 토목 |
| 장윤덕  | 충북대학교 | 건축 |
| 전찬경  | 강원대학교 | 토목 |
| 정다영  | 연세대학교 | 건축 |
| 조현곤  | 경북대학교 | 토목 |
| 채수환  | 전북대학교 | 토목 |
| 풍경아  | 고려대학교 | 건축 |
| 하상희  | 고려대학교 | 토목 |

## 2008년 선발 / 2009년 장학금 지급

| 성명  | 학교      | 전공 |
|-----|---------|----|
| 김정란 | 한양대학교   | 사학 |
| 노수영 | 이화여자대학교 | 사학 |
| 류찬호 | 고려대학교   | 사학 |
| 문성진 | 한양대학교   | 건축 |
| 민혁준 | 고려대학교   | 건축 |
| 박상훈 | 연세대학교   | 건축 |
| 박수연 | 연세대학교   | 건축 |
| 박은영 | 서강대학교   | 사학 |
| 박초롱 | 이화여자대학교 | 사학 |
| 박춘구 | 한양대학교   | 토목 |
| 배수정 | 서울대학교   | 사학 |
| 손진배 | 서울대학교   | 토목 |

3기 포니정 장학생 지급 총 금액 ... 1억 8,255만 4,000원

## 2009년 선발 / 2010년 장학금 지급

| 성명  | 학교      | 전공        |
|-----|---------|-----------|
| 김지호 | 고려대학교   | 건축        |
| 김상우 | 서울대학교   | 건축        |
| 김예은 | 한양대학교   | 건축공학      |
| 김은지 | 서울대학교   | 고고미술사     |
| 김진영 | 연세대학교   | 토목,환경공학   |
| 김현중 | 연세대학교   | 건축공학      |
| 노수영 | 이화여자대학교 | 사학        |
| 박가현 | 한양대학교   | 사학        |
| 박상훈 | 연세대학교   | 건축        |
| 박호철 | 서울대학교   | 지구환경시스템공학 |
| 서명석 | 한양대학교   | 토목공학      |
| 손상우 | 고려대학교   | 사회환경시스템공학 |

4기 포니정 장학생 지급 총 금액 ... 1억 9,322만 3,000원

## 한국예술종합학교 피아노과 김준희

2008년 5월 포니정을 개관에 맞춰 예술 분야 후원 및 인재 육성을 위해 재단에서 지원을 결정한 예술분야 특별

장학생으로 선발. 매월 장학금과 연주 후원비로 200만 원 지원.

장학금 지급 총 금액 ... 2010년까지 총 6,200만 원 지급

## 3기 포니정 장학생 (24명)

| 성명  | 학교    | 전공 |
|-----|-------|----|
| 여선영 | 서강대학교 | 사학 |
| 유지민 | 한양대학교 | 사학 |
| 이문섭 | 연세대학교 | 토목 |
| 이준혁 | 한양대학교 | 건축 |
| 장재경 | 연세대학교 | 사학 |
| 전맥  | 서울대학교 | 건축 |
| 정다솜 | 서울대학교 | 사학 |
| 조규연 | 서울대학교 | 건축 |
| 조현민 | 연세대학교 | 사학 |
| 조혜영 | 고려대학교 | 사학 |
| 최시훈 | 고려대학교 | 건축 |
| 하상희 | 고려대학교 | 토목 |

## 4기 포니정 장학생 (24명)

| 성명  | 학교      | 전공        |
|-----|---------|-----------|
| 이나영 | 연세대학교   | 건축        |
| 이주영 | 연세대학교   | 사학        |
| 이준혁 | 한양대학교   | 건축공학      |
| 이홍빈 | 서강대학교   | 사학        |
| 전맥  | 서울대학교   | 건축        |
| 정성훈 | 서울대학교   | 동양사       |
| 조성민 | 한양대학교   | 역사학       |
| 조혜영 | 고려대학교   | 한국사       |
| 주수향 | 서강대학교   | 사학        |
| 최선영 | 이화여자대학교 | 사학        |
| 최정흠 | 고려대학교   | 사회환경시스템공학 |
| 한준희 | 고려대학교   | 건축        |

## 예술 부문 장학생

GREAT INNOVATION

장학사업 포니정 장학생 명단

포니정 베트남 장학생

2007년 베트남 포니정 장학생  
(20명)

베트남 국립 호치민 대학교 20명

| 성명                   | 전공                                     | 비고 |
|----------------------|----------------------------------------|----|
| Nguyen Thi Qui       | Construction Technology and Management |    |
| Nguyen Anh Thu       | Civil Engineering                      | 석사 |
| Phan Luu Minh Phuong | Civil Engineering                      |    |
| Nguyen Thanh Van     | Construction Materials                 | 석사 |
| Dinh The Hung        | Civil and Industrial Engineering       |    |
| Tran Thai Minh Chanh | Civil and Industrial Engineering       |    |
| Le Luong Bao Nghi    | Civil and Industrial Engineering       |    |
| Tran Vinh Loc        | Civil and Industrial Engineering       |    |
| Nguyen Thi Thu Thao  | Civil Engineering                      |    |
| Huynh Ngoc Thi       | Transportation Engineering             |    |

2007년 베트남 포니정 장학생 지급 총 금액 ... 3만 달러(US) (일인당 500달러)

2008년 베트남 포니정 장학생  
(60명)

베트남 국립 하노이 대학교 30명

| 성명                  | 전공                                     | 비고 |
|---------------------|----------------------------------------|----|
| Nguyen Anh Thu      | Construction Technology and Management | 석사 |
| Le Luong Bao Nghi   | Civil and Industrial Structures        | 석사 |
| Tran Quoc Toan      | Civil and Industrial Structures        | 석사 |
| Tran Duc Hoang Viet | Geotechnical Engineering               | 석사 |
| Bui Phuong Trinh    | Construction Materials                 | 석사 |
| Do Tien Sy          | Construction Technology and Management | 석사 |
| Huynh Ngoc Thi      | Bridge and Tunnel Engineering          | 석사 |
| Nguyen Quang Truong | Water Resources Engineering            | 석사 |
| Chau Phuong Khanh   | Mapping, Remote Sensing and Gis        | 석사 |
| Nguyen Trong Khanh  | Mapping, Remote Sensing and Gis        | 석사 |
| Le Thanh Tuyen      | Civil and Industrial Structures        |    |
| Nguyen Thanh Tuan   | Civil and Industrial Structures        |    |
| Le Nhurt Truong     | Civil and Industrial Structures        |    |
| Dang Ngoc Canh      | Civil and Industrial Structures        |    |
| Dang Ngoc Loi       | Bridge and Highway                     |    |

| 성명                      | 전공                             | 비고 |
|-------------------------|--------------------------------|----|
| Bui Phuong Trinh        | Civil Engineering              |    |
| Tran Duc Hoang Viet     | Department & Civil Engineering |    |
| Le Hoang Thanh Nam      | Civil Engineering              |    |
| Dinh Quoc Bien          | Civil Engineering              |    |
| Huynh Thanh Canh        | Civil Engineering              |    |
| Nguyen Khac Dung        | Civil Engineering              |    |
| Vo Minh Ho              | Civil Engineering              |    |
| Nguyen The Truong Phong | Civil Engineering              |    |
| Nguyen Khuong Tin       | Civil Engineering              |    |
| Le Tien Trung           | Civil Engineering              |    |

| 성명                 | 전공                              | 비고 |
|--------------------|---------------------------------|----|
| Dang Thanh Hoai    | Civil and Industrial Structures |    |
| Nguyen Thanh Loc   | Civil and Industrial Structures |    |
| Nguyen Thanh Nghia | Civil and Industrial Structures |    |
| Nguyen Van Anh     | Civil and Industrial Structures |    |
| Le Minh Tien       | Civil and Industrial Structures |    |
| Do Ba Trong        | Bridge and Highway              |    |
| Hoang Cong Luan    | Civil and Industrial Structures |    |
| Nguyen Tan Curong  | Civil and Industrial Structures |    |
| Tran Huy Toan      | Civil and Industrial Structures |    |
| Dang Ngoc Toan     | Civil and Industrial Structures |    |
| Ha Duy khanh       | Civil and Industrial Structures |    |
| Nguyen Trung Kien  | Civil and Industrial Structures |    |
| Tran Duy Khanh     | Bridge and Highway              |    |
| Tran Trong Tri     | Construction Materials          |    |
| Tien Chi Long      | Civil and Industrial Structures |    |

베트남 국립 하노이 대학교 30명

| 성명                     | 전공                                   | 비고 |
|------------------------|--------------------------------------|----|
| Le Anh Tin             | Pedology                             |    |
| Vu Thuy Linh           | Meteorology Hydrology & Oceanography |    |
| Vu Van Minh            | Geology                              |    |
| Nguyen Thi Thanh Hoang | Geography                            |    |
| Nguyen Van De          | Geology                              |    |
| Nguyen Thi Thu Trang   | Literature                           |    |
| Nguyen Dinh Hau        | Journalism & Communication           |    |
| Nguyen Thi Dung        | Tourism                              |    |
| Nguyen Thi Dinh        |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    |
| Nguyen Tuan Anh        | Psychology                           |    |
| Le Hong Hanh           | Russian Language & Culture           |    |
| Dao Van Huynh          | French Language & Culture            |    |
| Ta Thi Thanh Tam       | French language & culture            |    |
| Chu Thi Phuong Nhung   | German language & culture            |    |
| Nguyen Thu Ha          | German Language & Culture            |    |

2008년 베트남 포니정 장학생 지급 총 금액 ... 6만 달러(US) (일인당 500달러)

베트남 국립 호치민 대학교 30명

| 성명                      | 전공                              | 비고 |
|-------------------------|---------------------------------|----|
| Nguyen Hoang Tuong Nhu  | Civil Engineering               |    |
| Nguyen Ba Quang Vinh    | Civil Engineering               |    |
| Dinh Quoc Bien          | Civil Engineering               |    |
| Vang Hieu Quang         | Civil Engineering               |    |
| Nguyen Tan Tien         | Civil Engineering               |    |
| Nguyen Tan Cuong        | Civil Engineering               |    |
| Nguyen The Truong Phong | Civil Engineering               |    |
| Pham Minh Tue           | Civil Engineering               |    |
| Lam Vu Ngo Hung         | Civil Engineering               |    |
| Hoang Xuan Duc          | Civil Engineering               |    |
| Nguyen Minh Tri         | Mechanical Engineering          |    |
| Phan Thanh Duong        | Electrical & Electronic         |    |
| Nguyen Xuan Binh        | Electrical & Electronic         |    |
| Le Hong Khiem           | Electrical & Electronic         |    |
| Bui Duc Tai             | Chemical Technology & Petroleum |    |

베트남 국립 하노이 대학교 30명

| 성명                   | 전공                                      | 비고 |
|----------------------|-----------------------------------------|----|
| Dang Thi Ngoc Anh    | College of Science                      |    |
| Nguyen Van Tang      | College of Science                      |    |
| Pham Hoai Thu        | College of Science                      |    |
| Ngo Thi Huyen Trang  | College of Science                      |    |
| Trinh Thi Kieu Trang | College of Science                      |    |
| Dang Van Doan        | College of Science                      | 석사 |
| Tran Anh Tuan        | College of Science                      | 박사 |
| Mai Linh             | College of Social Sciences & Humanities |    |
| Nguyen Thi Anh Hong  | College of Social Sciences & Humanities |    |
| Le Hong Nhung        | College of Social Sciences & Humanities |    |
| Vu Thi Ngao          | College of Social Sciences & Humanities |    |
| Le Thi Bich Phuong   | College of Social Sciences & Humanities |    |
| Nguyen Son Minh      | College of Social Sciences & Humanities | 박사 |
| Nguyen Hai Ha        | College of Foreign Languages            |    |
| Nguyen Thi Ngoc Diep | College of Foreign Languages            |    |

2009년 베트남 포니정 장학생 지급 총 금액 ... 6만 달러(US) (일인당 500달러)

2009년 베트남 포니정 장학생  
(60명)

| 성명                  | 전공                                | 비고 |
|---------------------|-----------------------------------|----|
| Pham Toan Thuc      | Chemical Technology & Petroleum   |    |
| Vu Huong Van        | Chemical Technology & Petroleum   |    |
| Lam Ngoc An         | Computer Science & Engineering    |    |
| Hoang Khanh Hung    | Computer Science & Engineering    |    |
| Tran Quoc Huy       | Computer Science & Engineering    |    |
| Dang Ngoc Canh      | Civil Engineering                 | 석사 |
| Nguyen Van Khanh    | Mechanical Engineering            | 석사 |
| Le Hoang Thanh Nam  | Material Engineering              | 석사 |
| Nguyen Trong Khanh  | Geology and Petroleum Engineering | 석사 |
| Huynh Ngoc Thi      | Civil Engineering                 | 석사 |
| Tran Duc Hoang Viet | Geology and Petroleum Engineering | 석사 |
| Bui Phuong Trinh    | Material Engineering              | 석사 |
| Phan Dinh Tuan      | Mechanical Engineering            | 석사 |
| Truong Tuan Anh     | Computer Science                  | 석사 |
| Phan Dinh Khoi      | Computer Science                  | 석사 |

| 성명                 | 전공                           | 비고 |
|--------------------|------------------------------|----|
| Nguyen Thi Dung    | College of Foreign Languages |    |
| Chu Thi Luong      | College of Foreign Languages |    |
| Nguyen Thi Huong   | College of Foreign Languages |    |
| Nguyen Thuy Duong  | College of Foreign Languages |    |
| Nguyen Xuan Truong | College of Technology        |    |
| Vuong Quoc Trung   | College of Technology        |    |
| Tran Bao Thai      | College of Technology        |    |
| Nguyen Van Hiep    | College of Technology        |    |
| Vu Nguyen Thuc     | College of Technology        | 박사 |
| Doan Quoc Dung     | College of Economics         |    |
| Nguyen Thi Mai     | College of Economics         |    |
| Bui Thi Hoai       | College of Education         |    |
| Tran Thi Phuong    | College of Education         |    |
| Nguyen Thanh Ha    | Faculty of Law               |    |
| Le Thi Thu Hang    | Faculty of Law               |    |

## 강한 신념과 참된 인성의 피아니스트가 되어 보답하겠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피아노과 4학년

김준희



김준희 학생은 2008년 5월 포니정홀 개관과 더불어 장학생으로 특별 선발되어 3년째 포니정 재단과 이름을 함께 하고 있다. 자신을 향한 신뢰와 후원의 의미를 언제나 가슴 속에 새기며 기량을 키워가고 있는 그는 이미 세계 무대에서 주목하는 피아니스트로 우뚝 섰다. 현재보다 장래가 더욱 촉망되는 젊은 예술인, 김준희 학생을 만나 본다.

“예술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자신을 믿고 지지해 주는 사람들의 격려일 것입니다. 포니정 재단의 관심과 후원은 저의 연주생활을 위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주었고 또한 자유로운 사고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김준희 학생은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피아노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예술학도다. 그는 2008년 5월 포니정홀 개관 당시, 예술 분야의 발전을 위해 재단이 선정한 첫 번째 예술 특별 장학생이다. 김준희 학생은 서울예술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 남다른 재능을 인정받아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조기 입학한 피아노 영

재로, 입학한 해인 2007년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프랑스 롱티보 국제 콩쿠르에서 2위를 차지하며 두각을 드러냈다. 이후에도 크고 작은 국제 대회에서 좋은 성적으로 입상하며 촉망되는 장래를 약속했다.

이런 김준희 학생의 자질을 눈 여겨 본 포니정 재단은 2008년 6월부터 매월 200만 원씩, 연간 2,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음악인으로서의 성장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세계 인재들 속에서 자신의 재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이름을 알리는 기회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막상 국제 콩쿠르에 나갈 기회가 되어도 여건이 되지 않아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김준희 학생은 포니정 재단의 격려 덕분에 그토록 염원하던 독일, 프랑스 등의 페스티벌에 참가해 실력을 겨룰 기회를 얻었다. 또한 외국 유수 음악학교의 교수님들로부터 마스터 클래스를 받으며 음악적 발전은 물론, 음악인으로서 갖춰야 할 깊은 사고와 철학도 확장할 수 있었다. 이런 모든 활동들이 차곡차곡 쌓여 현재 김준희 학생은 가장 촉망 받는 젊은 연주자로 성장했다.

작년 5월, 김준희 학생은 피아니스트 백건우와 예술의전당에서 협연 무대를 가졌으며, 6월에는 호암아트홀에서 단독 리사이틀을 열기도 했다. 그 밖에도 중국 상하이에서 두 번의 신년음악회 협연을 성공리에 마쳤으며, 프랑스에서 쇼팽 탄생 200주년 기념 독주회를 성공리에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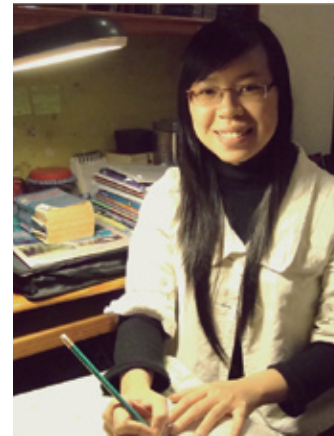
그는 올해 프랑스, 독일, 중국 등에서 다수의 연주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 밖에도 올해 연주 일정표는 빼곡하다. 이렇듯 다양한 무대에서 다양한 청중을 만나며 자신의 기량을 더욱 다지고 있는 젊은 재능 넘치는 피아니스트. 계속해 발전해 가고 있는 젊은 연주자, 그의 재능이 앞으로 또 어떻게 번주되고 발전될지, 자못 기대된다.

“좋은 연주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강한 신념과 참된 인성, 그리고 끊임 없는 도전정신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조금이나마 그 덕목들을 갖춰나가고 있다면 그건 포니정 재단 덕분입니다. 포니 하나로 전 세계를 누비며 한국인의 기상을 떨친 정세영 명예회장의 배포와 글로벌한 시각을 배울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며, 도전정신과 혁신정신을 평생 자산으로 여기고 그 뜻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 한국과 포니정은 저의 국제적 은사입니다

베트남 하노이 국립대학교 외국어대학 3학년

응웬 하이하 Nguyen Hai Ha



포니정 재단은 2007학년도부터 베트남 현지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장학금 제도의 수혜자 중 한 명인 베트남 하노이 국립대학교 3학년, 응웬 하이하 학생은 뛰어난 학업 성취도는 물론, 국제적 감각 등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재원이다. 현재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미래 꿈을 향한 왕도라고 당차게 말하는 그녀를 만나 본다.

“포니정 재단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저의 노력에 대한 인정과 격려와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의 가장 큰 의무는 공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늘 진지하게 학업에 임했던 것이 저의 행운의 열쇠였던 것 같아요. 장학금을 받은 이후 더욱 더 공부에 정진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포니정 재단이 베트남 학생들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장학금 제도의 수혜자, 베트남 하노이 국립대학교의 응웬 하이하 학생. 공부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확장해 스스로 책임감을 부여하는 그녀는 베트남 학생들의 긍정적인 열정을 상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그녀는 대학에서 외국어를 전공하고 있다. 장래 희망은 학생들에게 지식뿐만 아니라 삶에 영감을 불어넣어 희망을 전파하는 영어 교사가 되는 것이다. 그녀가 이런 꿈을 갖게 된 데는 두 가지 큰 동기가 있다. 그 중 하나는 바로 넉넉하지 않은 가정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도전정신을 길러준 부모님이다. 무언가가 두렵다 하더라도 도망치지 말고 도전하라는 어머니의 가르침은 그녀에게 언제나 현명한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과 같다. 또 하나의 동기는 바로 어린 시절 그녀가 만난 영어 선생님이다. 공부에 대한 재미를 일깨워 준 것은 물론, 삶에 대한 시야를 넓혀준 영어 선생님을 통해 그녀도 타인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꿈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뤄 미래의 제자들에게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것이야말로 은사에 대한 참다운 보은일 것이라며 당차게 이야기한다.

사실 그녀에게는 또 하나의 큰 꿈이 있다. 바로 한국어를 능숙하게 익혀 한국과 베트남의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드라마와 음악 등 문화 콘텐츠를 통해 처음 한국을 접하기 시작한 그녀는 점차 한국이 가진 남다른 에너지에 감복했고, 그것은 현재 그녀 가슴에 또 하나의 열정의 불꽃을 피우고 있다.

“저는 포니정 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기 이전부터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접하며 한국을 공부해 오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의 혁신적인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도 강한 인상을 받았죠. 세계를 놀라게 한 그 산업의 선구자인 정세영 회장님은 창조성과 의지력이라는 메시지를 세상에 전파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젊은 세대는 그 분으로부터 애국심은 물론, 대담함과 현명함, 그리고 책임감을 배워야 합니다.”

이렇듯 그녀에게 한국과 포니정은 국제적 시야를 넓혀준 또 하나의 은사나 다름없다. 현재 그녀가 가슴에 품고 있는 두 가지 꿈은 결국 국제적 안목과 재능을 갖춘 인재라는 큰 나무를 키워가는 건실한 뿌리들이다. 이 나무가 튼튼하게 성장해 세상에 좋은 그늘을 드리우는 미래, 기대해도 좋을 듯하다.

“포니정 장학금 수혜자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목표를 세우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며, 계속해서 도전하고 탐험해 나갈 것입니다. 성공적인 미래를 개척하는 것만이 이 고마움을 갚는 길이었지요. 포니정 재단에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 Make the future

미래를 만듭니다

미래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고 개척하는 것

창의

혁신

도전

포니정 재단은

정세영 회장의 정신을 계승합니다

이 땅의 무한한 가능성을 응원합니다

우리의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 이 땅에 소중한 거름이 될 것입니다

GREAT SHARING

포니정 재단 주요 재무 현황

포니정 재단은 재단에 출연하여 주신 기부자 분들의 뜻을 소중히 여기고 공익법인으로서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에서 수행하는 모든 사업이 영구히 지속될 수 있도록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포니정 재단은 정세영 회장의 정신을 계승하고 우리 사회의 창조적 발전을 염원하는 기부자 분들의 뜻을 받들어 매년 기금을 혁신상, 학술지원금, 장학금 등에 소중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01. 출연금

(단위: 천 원, 2009년 12월 31일 기준)

| 구분(연도) | 금액         | 출연자                                                                            |
|--------|------------|--------------------------------------------------------------------------------|
| 2005   | 3,600,000  |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한일이화                                                              |
| 2006   | 6,880,000  |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현대시멘트, 한국프랜지공업, 한일이화, 세중공업, 현대산업개발, 아이앤콘스, 현대EP        |
| 2007   | 3,650,000  | 정상영, 현대해상, 현대시멘트, 경산공업, 한일이화, 현대백화점, 한무쇼핑, 현대DSF, 세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
| 2008   | 514,000    |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아이서비스                                                  |
| 2009   | 1,034,000  | 아이콘트롤스, 현대EP, 아이앤콘스, 아이서비스, 세지솔로텍                                              |
| 합계     | 15,678,000 |                                                                                |

02. 재단 재산 보유 현황

(단위: 천 원, 2009년 12월 31일 기준)

| 구분    | 금액         |
|-------|------------|
| 기본 재산 | 13,550,000 |
| 보통 재산 | 1,048,046  |
| 합계    | 14,598,046 |

03. 2009년 주요 사업 실적

03-1. 2009년 부문별 수입 내역 (단위: 천 원)

| 구분        | 금액      |
|-----------|---------|
| 은행 수입이자   | 346,678 |
| 채권 수입이자   | 253,382 |
| 이자소득세 환급  | 113,496 |
| 목적사업용 출연금 | 34,000  |
| 합계        | 747,556 |

03-2. 2009년 주요 지출 내역 (단위: 천 원, 2009년 12월 31일 기준)

| 구분       | 2009년 지출액 | 지출액(누계)   |
|----------|-----------|-----------|
| 국내 장학금   | 203,157   | 768,064   |
| 해외 장학금   | 35,253    | 86,452    |
| 학술지원금    | 50,000    | 70,000    |
| 포니정 혁신상  | 100,000   | 300,000   |
| 기타 목적사업비 | 48,382    | 347,727   |
| 기타 지원사업비 | 10,645    | 307,453   |
| 합계       | 447,437   | 1,809,696 |

04. 사업 실적(누계)

04-1. 장학금 지급 내역 (누계) (단위: 천 원, 2009년 12월 31일 기준)

| 구분              | 인원  | 금액      |
|-----------------|-----|---------|
| 국내 장학금          | 134 | 768,064 |
| 강원대학교           | 6   | 22,733  |
| 경북대학교           | 6   | 27,450  |
| 고려대학교           | 16  | 129,908 |
| 고려대학교 (동남아 유학생) | 19  | 36,480  |
| 부산대학교           | 6   | 27,982  |
| 서강대학교           | 4   | 23,984  |
| 서울대학교           | 16  | 80,744  |
| 연세대학교           | 16  | 126,604 |
| 이화여자대학교         | 4   | 24,876  |
| 전남대학교           | 6   | 27,042  |
| 전북대학교           | 6   | 26,553  |
| 충남대학교           | 6   | 29,745  |
| 충북대학교           | 6   | 26,692  |
| 한양대학교           | 16  | 119,271 |
| 한국예술종합학교        | 1   | 38,000  |
| 해외 장학금          | 140 | 86,451  |
| 호치민 국립대학        | 80  | 47,820  |
| 하노이 국립대학        | 60  | 38,631  |
| 합계              | 274 | 854,515 |

04-2. 학술지원금 지급 내역 (누계) (단위: 천 원, 2009년 12월 31일 기준)

| 구분             | 2009년 지급액 | 지급액(누계) |
|----------------|-----------|---------|
| 제1기 학술지원 대상    | 30,000    | 50,000  |
| 연세대학교 최윤오 교수   | 15,000    | 25,000  |
| 이화여자대학교 정혜중 교수 | 15,000    | 25,000  |
| 제2기 학술지원 대상    | 20,000    | 20,000  |
| 이화여자대학교 함동주 교수 | 10,000    | 10,000  |
| 서강대학교 최기영 교수   | 10,000    | 10,000  |
| 합계             | 50,000    | 70,000  |

04-3. 포니정 혁신상 지급 내역 (누계) (단위: 천 원, 2009년 12월 31일 기준)

| 구분                     | 지급액     | 비고              |
|------------------------|---------|-----------------|
| 제1회 수상자 : 반기문 UN 사무총장  | 100,000 | UN 해비타트 기부      |
| 제2회 수상자 : 서남표 KAIST 총장 | 100,000 | KAIST 발전기금 기부   |
| 제3회 수상자 : 가나안농군운동세계본부  | 100,000 | 해외가나안농군학교 설립 기금 |
| 합계                     | 300,000 |                 |

1928 강원도 통천 출생  
 1953 고려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1954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입학  
 1955 미국 오하이오주 마이애미대학교 전액 장학생으로 이적  
 1957 미국 오하이오주 마이애미대학교 정치학 석사  
 1967 현대자동차 설립 및 초대 사장 취임  
 1974 한국 최초 고유 모델인 '포니'로 토리노 국제모터쇼 참가  
 1976 포니 본격 생산 및 에라도르에 첫 해외 수출  
 1986 미국 오하이오주 마이애미대학교 명예 법학 박사  
 1986 미국에 포니 엑셀 첫 수출  
 1987 현대그룹 회장 및 현대자동차 회장 취임 (1987-1995)  
 1996 연세대학교 명예 경영학 박사  
 1997 고려대학교 명예 경영학 박사  
 1999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 취임  
 2005 향년 78세로 영면

-

1977 한·영 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1977-1995)  
 1987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1987-1997)  
 1993 고려대학교 교우회 회장 (1993-1999)  
 1998 한미협회 회장 (1998-2002)

-

1983 영국 왕실로부터 명예 대영제국 훈장 '커맨더 장(章)' 수훈  
 1985 금탑 산업훈장 수훈  
 1986 뉴욕 타임즈 紙, '산업계의 숨은 영웅' 선정  
 1995 미국 오토모티브 뉴스 '아시아 최우수 경영자상' 수상  
 1998 국민훈장 목련장 수훈



## 꿈과 희망을 남긴 영원한 선구자

# 포니정을 추억하며

정세영 회장은 독자적인 지식과 기술이 없이는 어떤 분야에서도 발전은 물론 생존도 어렵다는 판단 아래 현대자동차를 설립, 모두가 무모한 도전이라고 생각했던 대한민국 최초의 고유모델 <포니>를 세계시장에 선보였고, 오늘날 대한민국을 세계 굴지의 자동차 강대국으로 성장시켰다. 이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인재 양성, 연구 개발, 관련 산업 육성 등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부단히 매진한 정세영 회장의 노력과 열정이 일궈낸 영광의 기적이다.

그는 '미래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고 개척하는 것이다'는 신념을 강조하며 우리에게 미래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또한 원칙을 지키며 바른 길을 갈 때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한 번도 버리지 않았다.



1974 이탈리아 토리노 모터쇼

## Challenge

### 1967. 12 - 현대자동차의 역사가 시작되다

“정부의 자동차 제조 허가방침이 전해지자 기존 업체들의 반발과 일부 언론들의 우려도 만만치 않았다. ... 일부 언론들도 '자동차업계의 치열한 경쟁국면 돌입에 따라 국내 자동차 공업은 외국업체의 조립공장화 될 것이며 그 만큼 국산화는 요원한 일이 될 것'이라고 염려하였다. 하지만 이 같은 반발과 우려는, 언젠가 완전 국산화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기우였다.”

### 1968. 11 - 코티나 Job One (제1호 차) 탄생하다

“첫 차가 생산되어 나오던 순간, 나는 과연 제대로 작동할 것인지 초조하기 그지없었다. 시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조심스럽게 시동을 걸자, 기운찬 시동음과 더불어 임직원들과 포드 관계자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첫 코티나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제야 잔뜩 긴장했던 마음이 진정되면서 정말이지 내 생애 다시 없을 희열이 느껴졌다.”

### 1974. 10 - 국내 최초 고유 모델 포니, 토리노 국제 모터쇼에 참가하다

“세계 언론과 자동차 업계가 모두 현대 자동차와 포니에 탄성을 아끼지 않았다. 세계적인 자동차 박람회에서 뛰어난 고유 모델임을 검증 받은 자체만으로도 큰 성과였다. 한국이 세계에서 16번째로 고유 모델 보유 국가가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면서 그 만큼 우리 국력을 과시한 자리가 되었다. 이탈리아 토리노 모터쇼는 포니에게는 잊지 못할 데뷔 무대였으며, 나에게 세계를 향해 첫발을 내딛게 해 준 희망의 발원지였다.”





01. 1976 에콰도르에 처음으로 수출된 포니 - 02. 포니와 함께 - 03. 1985 금탑산업훈장 수상 (수출유공)

01 02  
03

## Pioneer

**1976. 7 - 포니, 에콰도르에 처음으로 수출하다**

“에콰도르에 처음 수출을 하며 우리가 보낸 것은 단지 다섯 대의 포니 뿐만은 아니었다. 포니를 선적한 컨테이너선이 드넓은 태평양을 건너는 동안 세계를 향한 우리의 꿈, 오대양 육대주를 향한 현대의 야망도 함께 실려 갔던 것이다.”

**1981. 10 - 30만 대 승용차 생산 공장 건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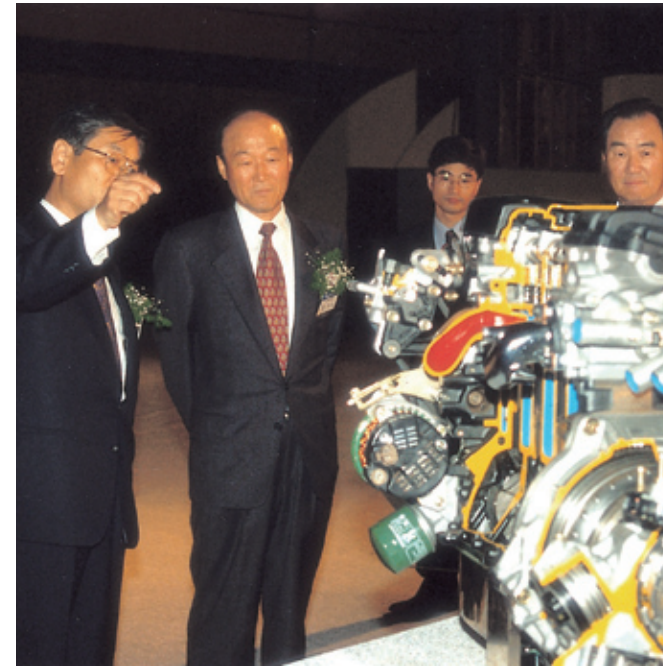
“30만 대 공장 건설 계획을 공표하고 난 후, 나는 본격적으로 수출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당시 내가 얼마나 수출에 사활을 걸고 매달렸는지, 그 동안 오일쇼크로 지쳐있던 중역이나 직원들이 사장실 근처는 가기도 싫다고 했을 정도였다. 그때 내 확고한 신념과 의지는 첫째도 수출, 둘째도 수출이었다.”

**1984. 2 - 국내 최초 자동차 주행 시험장 준공하다**

“안정성과 경제성을 요구하는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자동차 회사가 자체 주행 시험장을 갖추었다는 것은 보다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어 내놓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동등한 조건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품질경쟁’을 하겠다는 의지의 실현이었다.”

**1986. 1 - 엑셀, 미국에 수출하다**

“LA 모터쇼에 엑셀을 출품했을 당시, 오래 전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할머니 한 분이 엑셀을 자랑스럽게 쓰다듬으며 ‘전쟁으로 폐허가 된 조국에서 어떻게 이런 좋은 차를 만들어 미국까지 수출하게 되었느냐’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 할머니 눈에 흐르던 눈물의 의미가 오래도록 잊히지 않는다.”



01. 1996 티뷰론 신차 발표회 - 02. 1987 현대그룹 회장 취임 기자회견



01 02

## Success

**1991.1 - 국내 최초의 독자 엔진인 알파 엔진 및 트랜스미션 개발하다**

“1984년 ‘알파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인 독자엔진 및 트랜스미션 개발에 착수한 이래, 테스트를 위한 엔진 시제품만 300여 대, 트랜스미션 200대, 시험차량 15대 등이 투입되었다. 1991년 마침내 우리는 자동차의 기본인 스타일링뿐만 아니라 엔진 및 트랜스미션 설계의 자체 개발에 성공했고 이로써 순수 독자기술에 의한 완성차를 생산하게 된 것이다.”

**1995. 7 - 미국 오토모티브 뉴스 선정 1995 아시아 최우수 경영인상 수상하다**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가장 기여한 점을 꼽으라면 기계공업 발전과 자동차의 수출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은 수출을 통한 경제부국밖에 없었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시장에 성공적인 진출로 수상하게 된 미국 오토모티브 뉴스지 선정, 1995년 아시아 최우수 경영인상은 나에게 남다른 감격이었다.”

**1998. 10 - 해외 자족형 종합 자동차 공장인 인도 공장 준공하다**

“공장부지 선정 과정에서부터 나는 그 무더운 인도의 시골 구석구석을 다니며 우리의 꿈을 펼칠 무대를 찾았다. 마침내 준공된 인도 공장은 세계 10대 자동차 메이커 도약을 위한 진정한 세계화의 의지였다. 미지의 땅으로 불리는 인도…. 하지만 현대 자동차 인도 공장의 앞날은 결코 미지가 아니었던 것이다.”





01.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함께 - 02. 1995 레득안 (Le Duc Anh) 베트남 당서기와 함께



01 02

## Eternity

**1999. 3 -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 취임하다**

“현대산업개발을 찬찬히 살펴보니 인적 구성과 여러 면에서 현대그룹 내의 어느 계열사보다 우수하며, 장래성이 대단히 유망하다는 사실을 느꼈다. 현대산업개발의 사훈은 근면, 검소, 친애이다. 정직, 성실은 말할 것도 없이 기본적인 덕목이며, 우연이나 행운을 믿어선 안 된다. 성공은 쟁취해야 하는 것이지 행운에 기대해서는 결코 이루지 못한다.”

**2001. 3 - 'I'PARK'로 아파트 브랜드 시대를 개척하다**

“1976년 한국도시개발로 출범한 현대산업개발은 첫 사업으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건축, 분양했다. 아파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던 당시 이 땅에 아파트 역사를 새로이 창조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도 주택사업 부문에서 규모나 명성이 국내 정상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새로운 건축문화를 창조하고 선도해 나가야 한다. 향후 한국 제일의 건설회사로서의 위상 확보, 회사의 국제화, 환경산업 활성화, 생산산업 분야 확대 등의 과제를 성취해 내야 한다.”

**2005.05 - 향년 78세, 영면(永眠)하다**

“지난 세월 동안 나는 가급적 원칙을 지키고자 노력해왔으며 공평하고 곧은 길을 지향하는 정도경영(正道經營)을 소신으로 삼아왔다. 원칙을 지키는 경영을 지향한다면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다. 돌아보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았던 길, 그 길이 곧았다면 앞으로도 나는 곧은 길을 걸을 것이요, 그 길을 달리는 내 차 또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수원아이파크시티



아이파크 타워



포니정홀



해운대 아이파크



삼성동 아이파크



강남파이낸스센터



북항대교

영원한 선구자를  
기억하며

## 현대산업개발 &amp; 포니정홀

지난 1999년 현대산업개발의 명예회장으로 취임한 정세영 회장은 현대산업개발에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이라는 소중한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뜻을 이어받은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30여 년간 그래왔듯, 앞으로도 이 땅의 건축 문화를 선도하며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선진 기술과 인간 중심적인 건축 문화에 공헌하는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008년 정세영 회장의 3주기를 맞이해 삼성동 아이파크 타워 1층에 개관한 포니정홀은 정세영 회장의 열린 마음을 상징하는 다목적 복합문화공간입니다. 고인의 따뜻한 마음과 미래를 향해 열려 있었던 감성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이 공간에는 최신식 음향과 영상시설, 그리고 고인이 'PONY'를 개발하는 과정을 표현한 초대형 아트워크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포니정홀은 정세영 명예회장님의 뜻을 발전시켜나감과 동시에 이 땅의 문화 감성을 충족시켜줄 복합문화공간으로 위상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 Pony 鄭, 그는 포니정 재단의 정신 속에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정 회장님은 이제 이 세상에 없지만 그 분의 삶과 철학은 지금도 우리 사회의 모범으로 남아 있다. 그리고 우리들 가슴 속에 영원한 사표(師表)로 남을 것이다.

- 이명박 대통령

나는 고인이 훌륭한 교수이자 학자였고 뛰어난 외교관이었다고 생각한다. 우리에게 자기 희생의 가치와 교훈을 남겼고,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여 국력을 신장했기 때문이다.

- 강영훈 UNEP 한국위원회 총재 / 前 국무총리

외국인들이 정세영 회장에게 지어준 ‘포니 정’이라는 이름은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정 회장만의 값진 애칭이었다.

- 고희석 일정실업 회장

정세영 회장은 철두철미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겉으로 농담도 잘하는 유(柔)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내적으로 어느 누구보다 강(剛)한 외유내강(外柔內剛)의 성품이었다. 그런 성품이 있었기에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역사를 쓴 것이었다.

- 구두회 예스코 명예회장

나는 예나 지금이나 정세영 회장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생각한다. 무기를 들고 나라를 지키는 것만 애국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경제를 일으키고 지키는 일도 애국이기 때문이다.

- 김범일 가나안농군운동세계본부 총재

정 회장님은 정확하고 꼼꼼한 가운데, 항상 검소한 생활로 주위의 귀감이 되어주셨다. 그 같은 모습이야말로 한국 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이끈 주역으로서의 또 다른 힘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 노신영 롯데장학,복지재단 이사장 / 前 국무총리

내가 본 정 회장님은 비단 한 사람의 경영자가 아니었다. 나는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향해 험한 산길을 묵묵히 오르는 개척자의 모습을 보았다.

- 박병재 영창악기 회장 / 前 현대자동차 부회장

정 회장님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세심하고 냉철한 평가와 비판을 하시는 정도경영(正道經營)의 표상(表象)이라고 할 수 있다.

- 심현영 현대알루미늄 명예회장

나는 그가 평생 정도를 걸어왔음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죽는 날까지 정도를 걸어가리라 확신했었다.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킨 정세영 회장은 내 인생의 친구이자 존경하는 경영자다. 그리고 지금 저 세상 사람이 되어서도 한국 경제를 걱정할 진정한 일꾼이다.

- 연만희 유한양행 고문

정세영 회장은 어떤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 항상 사심 없이 원칙을 지켰다. 그 모습은 어려서 보았던 친구일 때부터 거대 기업의 회장으로 재임할 때까지 전혀 변함이 없는 것이었다.

- 유희춘 한일이화 회장

나는 형님의 성취욕과 개발의지에 탄복하고, 남다른 기업윤리와 상부상조(相扶相助)하는 후덕(厚德)을 존경하였다.

- 이만희 前 상주문화원장

정세영 회장님은 마침내 독자적인 고유 모델 생산이라는 모험에 도전하였다. 당시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었으며, 장차 대한민국 자동차산업의 역사를 바꿀 예지(叡智)였고 선견(先見)이었다.

- 이양섭 엠에스오토텍, 명신 회장 / 前 현대자동차 사장

지난 2005년 9월, 나는 디자이너로 일을 하기 시작한 지 50년이 되었다. 그 긴 시간 동안 나는 정세영 회장만큼 능력 있고 결연한 의지를 가진 분을 본 적이 없다.

- 조르제토 주지아로(Giorgetto Giugiaro) 이탈디자인 (Italdesign-Giugiaro S.p.A.) 회장

위의 글들은 2006년 발간된 정세영 회장 1주기 추모집 <꿈과 희망을 남긴 영원한 선구자 포니鄭>에서 발췌, 정리한 것입니다. 프로필은 현재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